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8788.38	↓ 코스닥	1050.03
	(+312.23)		(-24.77)
↑ 금리 (연율)	3.790	↓ 환율 (원/달러)	1506.95
	(+0.059)		(-0.95)

metro® 경제

엔비디아 젠슨황 이번엔 '삼겹살 회동' 5일 기업총수 회담 03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6월 2일 화요일

10% 급등 '34만전자'... 시총 2000조 돌파

코스피 전체 시총 7000조 넘어서 삼성전자 2040조, 코스피의 28% 글로벌 기준 11위, 2위 기업 중 2위 하이닉스·LG 등 IT기업 주가 급등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단일 기업 시총이 200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반도체와 IT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자 코스피 지수는 장 중 8874.16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09% 오른 34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총은 2040조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약 7237조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한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11위 수준으로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TSMC(약 3000조원)에 이어 2위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25%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약 191% 오르며 연일 상승세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AI 서버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생산 역량을 갖



내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춘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았다. 약점으로 지적돼 온 고대역폭 메모리(HBM)에서도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세계 최초로 7세대 HBM인 'HBM4E'의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 당초 올해 3분기(7~9월)로 예상하던 공급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삼성전자는 2월 세계 최초로 HBM4(6세대)를 양산 출하하는 등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메모리 분야에서 '최초' 타이틀을 선점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시장에서 빠르

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밋빛 실적 전망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43조601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올해는 35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투자사 서스퀘어나의 메흐디 호세이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 의견 '긍정(Positive)'과 목표주가 85만원을 제시했다. SK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61만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400

만원으로 올렸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공간여력 우위, HBM 시장 진입 본격화, 파운드리 수주 확대 등이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피도 8788.38에 마감하며 '9천피' (지수 9000선)에 살짝 다가섰다. 지수는 '9천피(코스피 9000)'까지 불과 211.62포인트를 남겨 두게 됐다. (4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수출 훈풍 연간 무역흑자 기록 5개월 만에 넘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을 타고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단 5개월 만에 역대 연간 최대 무역흑자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5억 달러, 수입은 20.8% 증가한 608.0억 달러로 269.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이로써 올해 1~5월 누적 무역흑자는 1091억 달러를 기록, 종전 연간 최대치였던 2017년의 952억 달러를 조기 경신했다.

5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상회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산업부, 5월 수출액 877.5억 달러 올해 누적 무역흑자 1091억 달러

일평균 수출액 역시 42.8억 달러로 사상 첫 40억 달러선을 돌파했다. 일등 공신인 반도체는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유지와 단가 폭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69.4% 급증한 371.6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24.2%)과 바이오헬스(+5.2%) 등 유망 소비재도 활황을 보였다. 다만, 자동차(-5.9%)와 일반기계(-6.3%)는 조업일수 감소와 물류 차질 등으로 다소 주춤했다.

시장의 관심은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여부로 쏠린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추세를 감안해 보면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던 9200억 불 이상,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9500억 불에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실제로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증권사에서도 말하는 1조 불 달성도 이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가격 인상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추격 나선다

TSMC, 하반기 3나노 15% 올릴 듯 이후 내년에도 최대 10% 인상 무계 첨단공정 가격 낮은 삼성 대안 부상 2나노 수율 60%대 '안정적 양산'

TSMC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을 배경으로 첨단 공정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nm(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 수율 개선과 AI 반도체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고객사들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올 하반기에 주력 선단 공정인 3나노 가격을 최대 15%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7년에 5%~10% 수준의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3나노 공정 수요는 주로 스마트폰 시스템온칩(SoC)이 주도해 왔지만 최근 A

I 서버 플랫폼 교체 주기가 본격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까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면서 3나노 웨이퍼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TSMC의 가격 인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TSMC 대비 첨단공정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가 확대될 경우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게이트올라라운드(GAA) 공정을 양산하는 등 차세대 공정 경쟁력 확보에 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발목을 잡아 온 수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수율이 현재 6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수율 60% 안팎을 안정적인 양

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엔트로픽의 칩을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엔트로픽은 최근 진행한 시리즈 H 투자 라운드에서 650억달러(한화 약 98조원)를 유치했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투자 참여 기업 중 첨단 파운드리 사업을 보유한 곳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점에서 향후 AI 반도체 위탁생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뿐 아니라 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고성능 시장으로 쏠리는 차량용 메모리 분야에서는 최근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LPDDR, UFS 등 저전력 메모리 솔루션을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고성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자율주행차

용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해 사업을 확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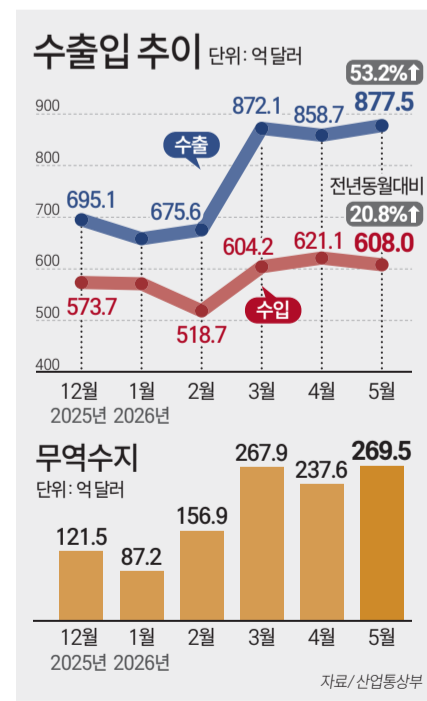
현재는 LPDDR5X·LPDDR5 등 고성능 D램 차량용과 품질 규격인 AEC-Q100을 충족하는 고성능 메모리, 첨단 V낸드 기반의 차량용 SSD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워 1위 자리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TSMC의 가격 인상이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파운드리 반사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며 "현재 반도체 수요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가격 인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는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명박·박근혜 野선거운동 동참...與 “윤석열 까지 감옥 삼인방” /사진 뉴시스
▲홍준표, 박근혜·이명박 유세 겨냥 “전직 대통령 답장은 행동”

▲이준석, 새치기 논란에 “한적한 때 투표장 방문...새치기는 착각”
▲유영하 “박근혜, 단종처럼 모함 벗고 복위...진실은 감춰지지 않아”

▲스타벅스, 카드 잔액 ‘전액환불’ 진행...1인당 200만원까지 신청
▲정부, 폐교 활용 사업 공모 진행...‘지방 소멸 극복 모델’ 마련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식품 전시회 '타이팩스-아누가 2026' 국내기업 부스 전경. (왼쪽부터) 롯데푸드, 삼양식품, 대상, 남양유업.

식품기업, 웰니스·할랄 등 차별화... 'K-푸드 2.0'시대 연다

타이팩스-아누가 2026
 롯데푸드 서정호 대표 현장경영
 삼양식품 연구소 콘셉트 부스 운영
 대상 동남아 주요 바이어 수출 상담
 남양유업 테이크아웃 등 제품 소개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오른쪽)과 서정호 롯데푸드 대표이사(왼쪽)가 타닛 치라바는 C P Aextra Wholesale 사업 부문 그룹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푸드

국내 대표 식품 기업들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에 대거 참가해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롯데푸드, 삼양식품, 대상, 남양유업은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무역박람회 '타이팩스-아누가 2026(T-HAIFEX-Anuga Asia 2026, 이하 타이팩스)'에 참가해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타이팩스 박람회는 전 세계 56~60개국에서 3300~36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40여 개국에서 약 10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 및 바이어가 찾으며 전 세계 식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이 됐다.

이번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롯데푸드는 국내 참가 기업 중 최대 규모 수준

인 14개 부스(126m²)를 꾸미고 서정호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글로벌 영업을 진두지휘했다.

롯데푸드 부스는 핵심 브랜드인 '빼빼로'를 필두로 가나, 자일리톨, ZERO, 티코, 빵빼레, 쉐푸드 냉동 삼각김밥 등 20여 가지 브랜드로 구성됐다. 특히 글로벌 앰배서더인 '스트레이 키즈'를 내세운 빼빼로 포도준과 무설탕 브랜드 'ZERO'는 웰니스 트렌드에 관심이 높은 글로벌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

기간 중 태국 재계 1위 CP 그룹의 핵심 유통사인 'CP엑스트라(CP Aextra)'의 타닛 치라바는 Wholesale 사업 부문 그룹 대표가 롯데푸드 부스를 찾아 신유열 실장과 인사를 나누며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삼양 크레이브 랩(SAMYANG CRAVE LAB)' 콘셉트의 체험형 부스를 운영해 5일간 누적 방문객 약 4만 8000명을 끌어모았다. 불닭, 맵(MEP), 탱글(Tangle) 등 주요 브랜드를 독립된 연구소(LAB) 형태로 구성해 대표 제품 시식과 함께 디지털 스탬프 미션, 한정 굿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박람회 기간 중 아누딘 천위라꾼 태국 총리가 삼양식품 부스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대상은 김치 브랜드 '종가(Jongga)',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Ofood)', 인도네시아 현지 브랜드 '마마스카(Mamasuka)'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부스를 운영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1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태국 최대 유통사인 'CP 엑스트라'의 마크로와 로터스를 비롯해 박씨, 탐스 등 동남아 주요 바이어들과 실질적인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현지 식문화를 반영해 베트남 공장 생산 맛김치를 활용한 '맛김치 해산물 샐러드'와 '오푸드 컵 떡볶이' 등이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할랄 인증을 획득한 마마스카의 '고추장 페이스트'는 박람회 내 혁신 제품 쇼케이스인 'New to Market Street'에 선정되며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상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오는 2030년 동남아시아 법인 합산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2025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남양유업도 이번 박람회에서 단백질 음료·커피·RTD

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아웃 맥스'와 '테이크아웃 몬스터'를 중심으로 프렌차이즈, 루카스나인, 아이엠마더, 초코에몽 등 대표 라인업을 선보였다. 현재 홍콩, 몽골, 카자흐스탄 등 현지 유통 채널 입점을 확대 중인 테이크아웃은 최근 태국 현지 그룹사와의 협업을 통해 유통망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1%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타이팩스에서 확인된 국내 식품업계의 성과는 단순한 '한류 열풍'에 기댄 일시적 유행을 넘어, 현지화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K-푸드 2.0)'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과정 중심의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현지 거대 유통망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할랄 인증 및 웰니스(무설탕·고단백) 등 글로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수도권 등 청약시장 활기... 3만가구 분양 대기

이달 분양물량 전년 두 배 이상 전망
 서울, 장위·신길·노량진 등 신규공급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단지가 청약에 나서면서 이달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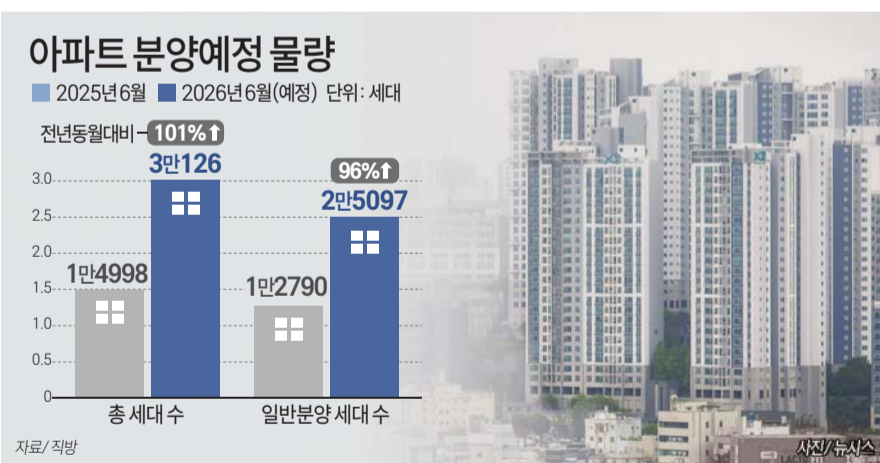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3만 126세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 4998세대) 대비 101% 증가했다.

일반분양 역시 2만 5097세대로 전년 동월(1만 2790세대)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모습"이라며 "신축 공급 감소 우려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향후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 9524세대로 전체 물량의 65%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물량이 집중됐다.

서울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 1931세대(812세대) ▲동작구 노량진동 드와인아르티아(404세대)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스클래스라비에르



(355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 자이더포레(1517세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지구하우스토리(A2)(1464세대) ▲고양시 덕양구 고양장릉S3(1306세대)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펠리스 타워양우내안에(1252세대) 등 대단지가 줄줄이 공급된다.

지방 공급은 경남과 충남을 중심으로 1만 602세대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 단지에서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 수요는 지역 구분보다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 생활 인프라, 배후수요 등을 갖춘 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당분간도 경쟁력을 확보한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청약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경남에서는 ▲김해신문센트럴아파트(1379세대)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1307세대) ▲밀양수자인더퍼스트1·2단지(총 1066세대) 등이, 충남 아산시에서는 천안아산역그랑시티팔하우스1BL(1534세대)이 분양 예정이다.

다만 분양 예정물량 대비 실제 공급은 제한적일 수 있다. 지난달 예정 물량은 총 1만 9278세대였지만 실제 분양실적은 1만 2542세대로 약 65% 수준에 그쳤다. 일반분양 역시 예정 물량 역시 1만 5495세대 가운데 절반 수준인 8284세대만 공급됐다.

/안성이 기자 smahn1@metro



구윤철 "재정부 중심 혁신·구조개혁 준비"

구 부총리, 확대간부회의 주제 "경제 대도약 골든타임 잡아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사진)은 현 시점이 바로 경제 도약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적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일 세종재정부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계기로, 재 정부가 혁신·구조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6월 이후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을 반등의 기반을 마련할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경제과제 중 하나로 경제성장을 제고를 내걸고 있다. 재 정부는 조만간 공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성장전략'에서 규제혁신, 산업구조개편,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제1, 2차관과 각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을 반등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구조개혁 추진방향과 부내 업무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재 정부의 AI(인공지능) 활용 확대 의지도 재치 드러났다. 회의에서는 최근 실시한

제2기 AI 단기집중반 교육수요자들의 프로젝트 3건이 시연됐다.

구 부총리는 "부내 AI 혁신 노력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부 특화 AI 에이전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간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급·고급 AI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68회 신규 사무관 임명식을 비롯해, 탐위크를 발취해 뛰어난 정책 성과를 보인 부서에 대한 '팀화행' 포상, 일상 업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직원을 격려하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도 진행됐다.

부처 내 팀화행 포상 부서로는 부동산·상속·증여 세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한 재산세제과와 경제분석과, 혁신정책담당관, 공공정책총괄과, 경제협력과 등 5개 부서가 선정됐다.

혁신정책담당관은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직혁신 역량 강화를 인정 받았다. 또 공공정책총괄과는 해외사무소 협업 플랫폼인 'K-마루' 프로젝트 추진, 경제협력과는 아시아개발은행(A DB) 연차총회 계기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성과에 대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젠슨 황, 이번엔 '삼겹살 회동'... HBM 넘어 피지컬 AI 협력

5일 성수동서 韓 총수 회동
SK·LG·네이버와 협력 논의
HBM4 공급 로드맵 점검 전망
LG·현대차 로보틱스 협력 부상
네이버 소버린·국방 AI 의제



지난 202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부터)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간부치킨 매장에서 치맥 회동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집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회동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넘어 로보틱스 기반 '피지컬 AI'로 협력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잇따라 회동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이번 만남에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장소로는 성수동 삼겹살집이 거론된다. 평소 캐주얼한 만남을 즐기는 황

CEO의 성향에 더해 장소가 젊은 층이 몰리는 핫플레이스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10월 삼성동 차킨집에서 열린 '간부 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협력의 한 축은 메모리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 '베라 루빈'에 6세대 HBM인 HBM4가 탑재되는 만큼, 황 CEO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공급 로드맵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

회(CES)에서 HBM4를 두고 "당분간 엔비디아가 유일한 소비자"라며 강한 수요를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는 HBM 공급에 더해 파운드리 협력도 의제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HBM4E 12단 샘플까지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며 일정을 앞당겼다. 메모리·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윈스톱 솔루션을 앞세워 TSMC에 편중된 엔비디아

공급망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고객 요청에 따라 HBM4를 양산하며, 엔비디아 차세대 GPU 탑재를 위한 최종 품질 검증에 대응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하반기 AI 칩 '루빈' 출시를 앞두고 SK하이닉스 물량 확보에 적극적인 만큼 업계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엔비디아 HBM4 공급량의 약 60~7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손잡고 HBM4 베이스 다이에 로직 공정을 도입해 엔비디아 GPU와의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다.

협력의 새 축은 피지컬 AI다. LG그룹과는 로보틱스 기반 협력이 핵심으로, 이번 구광모 회장과 황 CEO의 첫 공식 회동이다. LG전자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로봇 '블로이'를 자율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AI 홈 파트너'로 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협력은 LG전자를 넘어 그룹 전반으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LG AI연구원의 AI 모델, LG이노텍의 반도체 기반·로봇 센서, LG CNS의 로보틱스 플랫폼 등 주요 계열사가 피지컬 AI 밸류체인 전반에 포

진된 만큼 그룹 차원의 협력 청사진이 제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월부터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자회사 보스톤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틀라스'에 엔비디아 GPU를 탑재하고, 시뮬레이션 도구 '움니버스'를 활용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를 포함한 협력 확대가 다뤄질 전망이다. 네이버와는 소버린 AI와 피지컬 AI 플랫폼 협력이 주요 안건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APEC 당시 한국에 배정된 GPU 26만 장 중 가장 많은 6만 장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배정했고,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가 국방 AI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면서 국방 AI도 협력 의제로 떠올랐다.

한편, 황 CEO는 방한 기간 중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 구자로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호텔에서 국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K-방산, 지상무기 수출 질주... AI 무인체계 사업화는 과제

주요 방산사 해외 매출 8.8조
K2·K9·천무가 수출 성장 견인
AI·드론·로봇으로 영역 확대
미래형 무기 대형 수주는 아직
전력화·사업화 절차 개선 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방산업계가 AI 무인체계와 드론·로봇 등 미래형 무기체계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다만 해외 수출 성과는 아직 기동·지상무기에 집중돼 있어 신기술 개발을 대형 수출로 연결하는 사업화 속도가 과제라고 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해외 사업은 최근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해외 매출액

합계는 8조78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해외 매출액보다 611% 증가한 규모다.

수출 확대를 이끈 주력 품목은 지상전력과 방공체계에 몰려 있다. 폴란드 대형 계약을 계기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가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고, 중

동에서는 천궁-II를 중심으로 방공체계 수요가 늘었다. 반면 AI 기반 전장 통합체계와 대형 무인 플랫폼 등 미래형 무기체계에서는 아직 지상무기만큼의 대형 해외 수주 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AI·무인체계 분야로 기술 개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대로템은 피지컬 AI 기반 무인로봇과 무인 지상 전투차량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KAI 등도 드론·로봇·AI 전투체계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관련 사업이 아직 연구 개발과 실증 단계에 머무는 사례가 많아 해외 매출을 이끈 지상무기처럼 대형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AI와 무인체

계가 이미 대형 조달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 육군은 올해 안드릴과 AI 기반 전장 통합 소프트웨어, 무인체계, 데이터 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10년 규모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한도는 최대 200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한다. 미국 해병대도 안드릴과 최대 6억4200만달러(약 9659억원) 규모의 AI 기반 대드론(C-UAS) 체계 공급 계약을 맺었다. AI 소프트웨어와 무인체계가 독립적인 방산 조달 품목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업계에서는 국내 AI 무인체계가 대형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군 전력화 결정과 사업화 절차도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기술 무기체계는 개발 역량만으로 수출이 이뤄지기 어렵고 군 내

부에서 필요한 전력으로 인정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해외 시장에서도 실적을 만들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방산기업들은 AI 무인체계나 로봇 분야에서도 수요가 정해지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문제는 신기술을 실제 전력 소모로 확정하고 사업화하는 절차가 아직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시범획득 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만 시범 사업이 곧바로 대형 전력화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합참과 방위사업청, 국방부, 각 군이 함께 참여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美 태양광 공급망 규제 예고... OCI·한화 비중국 생산망 주목

232조 조사, 6월 말 전 발표 전망
폴리실리콘·파생제품 규제 가능성
OCI, 베트남 웨이퍼 거점 보유
한화솔루션, 美 통합 생산망 구축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규셀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미국이 태양광 공급망 규제 확대에 나서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공급망을 겨냥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비중국 생산거점과 미국 현지 생산체계를 확보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리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상무부가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6월 말 이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수입품에 관세·쿼터·수입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AD-CVD와 달리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며, 업계에서는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CI홀딩스는 비중국 폴리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텍 CEA는 수입 폴리실리콘 kg당 10달러, 잉곳·웨이퍼 W당 7센트, 셀 W당 10센트, 모듈 W당 20센트의 관세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나증권

은 이 경우 중국 다코(Daqq)의 현금원가가 kg당 4.6달러에서 14.6달러 수준으로 높아지는 반면 OCI홀딩스 생산원가는 약 12달러로 추정돼 상대적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경쟁력 외에 공급망 측면의 수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내 태양광 제조 투자가 셀·모듈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중간재인 웨이퍼 생산능력은 상대

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미국 웨이퍼 생산능력은 지난 2월 기준 5GW이며, 한화규셀 카터스빌 공장(3.3GW)을 포함해도 오는 2027년 8.3GW에 그친다. 반면 셀 생산능력은 19.8GW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약 11.5GW 규모의 웨이퍼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베트남 웨이퍼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웨이퍼 공급 부족을 보완할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회사는 조지아주 카터스빌에서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단지를 조성 중이며, 오는 3분기 셀 양산이 시작되면 미국 내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된다.

하나증권은 관세 부과 시 중국계 결정질 실리콘 모듈 가격이 최대 13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모듈 가격은 현재 W당 약 30센트지만 폴리실리콘·웨이

퍼 관세만으로 9센트, 셀·모듈 관세까지 더하면 총 39센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종 수혜 범위는 확정되지 않는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철강 232조가 국가별 예외와 쿼터 방식으로 운영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차등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은 이미 무역법 301조, AD-CVD,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으로 상당 부분 규제받고 있어 232조 시행 시 비중국 공급망 선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관세와 IRA 개편, OBBB 등 정책 불확실성이 232조 발표를 계기로 상당 부분 해소되면 고객사들의 조달·투자 결정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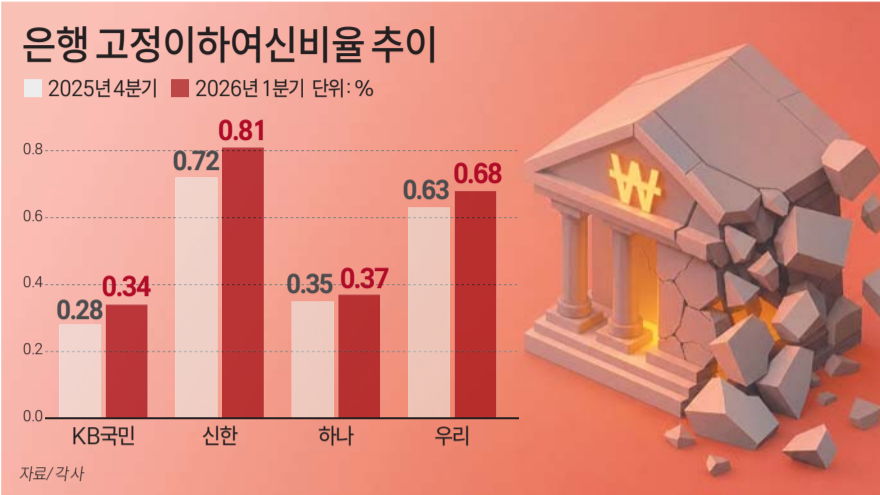
/유혜은 기자 dhahedhale@



0%대 연체율에도... 고금리·경기둔화에 잠재 부실 '꿈틀'

빚 갚기 어려운 사회 연체율과 부실채권

은행 1분기 연체율 0.32~0.39% 고정이하여신 규모·비율 늘어
'생산적 금융' 기조 맞춘 기업대출 향후 건전성 부담 요인 가능성
중소 신용위험 높아질 수 있어 하반기, 잠재부실 향방 분기점



은행권의 연체율은 0%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부실채권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와 달리 잠재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자영업자 취약차주·중소기업의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0.32~0.3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0.28~0.34%)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연체율 이면의 부실지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고정이하여신(NPL) 규모와 비율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은행권의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KB국민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4463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1672억원)과 비교해 24%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같은 기간 0.28%에서 0.34%로 상승했다.

신한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잔액도 지난해 말보다 968억원 증가한 1조1540억원을 기록했다. NPL비율은 같은기간 0.72%에서 0.81%로 0.09%포인트(p) 올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0.35%에서 0.37%로, 우리은행은 같은기간 0.63%에서 0.68%로 각각 상승했다.

은행권의 연체율 자체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중심의 잠재 부실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자영업자대출 부실 가능성을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대출을 확대해온 점도 향후 건전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주요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원화대출금 중 기업대출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194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감소 영향으로 183조4000억원에서 18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145조5000억원에서 146조4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87조8000억원에서 193조4000

억원으로 5조6000억원 급증했다.

하나은행 기업대출도 전분기 대비 3조2260억원 늘어난 179조468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과 법인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기업대출 증가가 향후 부실 확대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종과 건설업,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시장 인콰에선 올 하반기가 은행권 잠재부실의 향방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채권 증감 지표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 자체는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기업여신 증가세가 이어진 만큼 향후 건전성 지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지선 앞두고도 '부동산 정상화·머니무브' 강조

SNS에 부동산 탈세 기사 공유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할 것" "반도체 빼고도 코스피 지수 4100" 현 정부 성과 절하에 불쾌감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부동산과 증시를 연달아 언급하며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민감한 현안 언급을 꺼리는 선거 직전임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강조하며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 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80%가량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근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분석이 담겼다. 특히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

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꾸준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약 1년 동안 40여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엑스에 올리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또 이날 이 대통령은 반도체 중목을 제외하면 코스피가 사실상 4100~4200선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증권사 연구원 보고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축구 실력을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아래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핵심 중목을 제외하면서까지 현 정부의 성과를 절하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취임 전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었음을 감안하면, 반도체 등 핵심 중목을 제외해도 코스피 지수가 4100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 상승세를 반도체 착시 효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요지로도 해석된다.

통상, 선거 기간에는 주가나 부동산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을 꺼리지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 셈이다. 이는 어려운 현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형성되는 상황을 두고, 투기 수요와 불로소득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코스피 지수를 같은 날 언급하며 자산시장의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 8800선을 돌파하고, 8788.38로 마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금가분리' 장벽 낮아지나... 금융권,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속도

하반기 예정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금가분리 원칙 점진적 폐지 추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권 진출을 가로막았던 '금가분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도입했던 금가분리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요 금융사들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확보 경쟁에 뛰어 들면서다. 올 하반기 예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달 28일 국내 거래량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2%를 확보한다고 공시했다. 투자금액은 약 3100억원으로, 삼성증권은 투

자의 목적을 가상자산사업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확보라고 밝혔다. 같은날 한국투자증권도 해외 거래소 OKX와의 협약을 통해 코인원의 지분 20%를 확보했다.

국내 금융권은 올해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1조원 가량을 투자해 두나무 지분 약 7% 확보했으며, 20일에는 기존 두나무 주주였던 한화증권이 추가 투자를 통해 지분율을 10%까지 늘렸다. 올해 초에는 미래셋그룹이 자회사를 통해 코빗을 자회사로 인수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권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금가분리' 원칙이 폐지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가분리 원칙을 명시적으로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가분리는 2017년 가상자산 투기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표준에 맞춰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가분리 원칙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과 함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후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으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거래 허용·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내용도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

AI·반도체 장밋빛 전망 속 '과열' 우려도

>> 1면 '10% 급등 '34만전자'...'서 계속
코스피 질주의 배경에는 AI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과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증시가 AI 랠리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한 결과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 처리, 자산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도 한몫했다.

다만 이면에는 '과열'과 '반도체 쏠림'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들 업황에 따라 시장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화학·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의 이익 비중은 2021년 18%에서 2025년 3%로 급락했다. 유진

투자증권은 이날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는 4100~4200으로 추정된다"며 "2025년 이후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주가 부진은 올해 더 심해지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논란은 사회적 측면과 더불어 주식시장에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이라는 분석에 대해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람 없다"며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아래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사장님도 프리랜서도 절세부터 노후자금까지 한 번에!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확실한 절세 혜택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세액 공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최대 세액 공제액



탄탄한 금융상품 라인업

1,400여 개의 폭넓은 금융상품
(25.12월 기준 판매 상품)



믿을 수 있는 연금전문가

771개 지점 및 2,200여 명의 연금전문가
(26.3월 기준 지점 수, 26.2월 기준 은퇴설계·연금상담전문가 연수 및 자격증 보유 직원 수)



퇴직연금 자산관리

퇴직연금 전문 컨설팅센터 운영



더 알아보기

※ 가입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개인형IRP 수수료 : (사용자부담금) 연0%~0.45%, (가입자부담금) 연0.21%~0.28% ※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투자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경제상황 및 환율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2284호(2026.05.14.~2026.12.31.)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2127호(2026.05.13.), 광고물 유효기간 2026.05.13.~2026.12.31.까지

대전 공장 폭발사고에 여야 유세 취소… 유가족 지원 총력

지도부, 일정 취소하고 현장 방문
민주당, 선대위 비상가동체계 전환
국민의힘 “사고 수습에 최선” 당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총괄상임선대위원장)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상임선거대책위원장)가 1일 예정된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에 폭발사고가 일어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을 찾았다.

양당에 따르면 이삼걸 경북 안동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정 대표는 사고 소식을 듣고 오후 5시를 전후해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공장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대형참사 앞에선 선거운동보다 유가족들 아픔에 함께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며 “즉시 현장에 가서 사고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현장방문엔 조승래 사무총장과 박정현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 등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 출입구로 긴급재난대응차량이 오가고 있다. /뉴스시스

종료까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을 비상가동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6월1일 오전 6시를 기해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되는 3일 오후 6시까지 60시간 상황실 비상가동체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모든 정무직, 사무직 당직자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즉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본부장단회의 급 참석자의 경우 즉시 현장소집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또 전국 현장 조직, 직능, 언론, 온라인 여론, 후보자 동선 및 메시지 등 상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시 상황 점검 및 보고·집행체계도 유지한다.

당원을 대상으로는 “전 당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임한다” “자만하거나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철저히 경계한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 등의 행동 수칙이 전달됐다.

민주당은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지에 “투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실하게 임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며 “전 당직자께서는 가동 태세를 갖추고 선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유세 지원차 이날 제주도를 방문한 장 대표도 오후 7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장 선대위원장 및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시하여 적극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며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각급 선대위는 대전 사고의 인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걱정을 모아주시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에 극도로 유의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제주와 울산을, 송 위원장은 경기를 돌며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들을 취소했다.

/서울신문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정원오·박찬대 방지법’ 추진

단체장 후보 토론회 3회 이상 의무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위한 취지”
민주당 “野, 네거티브 선거에만 집중”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겨냥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방지법”과 박찬대 22촌 사칭 사기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토론을 회피하고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허탈하게 만드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당당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정원오 방지법”은 시도지사 후보의 토론회를 최소 3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어 박찬대 사기방지 3법”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며 “선거 후보자가 등록할 때 구체적인 촌수와 관계를 명시하도록 해 유권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직 중인 공직자들이 혈연관계를 허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명예를 허위로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다.

앞서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작계 5대손인 박기현씨는 지난달 29일 박찬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가 ‘22촌’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소개한 것은 진짜 후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울러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에 대해 “사실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부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투표 하나를 누락해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전부 막아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것이 정상적인 선관위의 업무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관련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방으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무슨 방지법, 금지법을 추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시스

한다고 하는데 대국민 호소, 말하지만 마지막 호소가 후보자 비방과 정부에 대한 비방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마지막까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선거를 일관하겠다는 의도만 보인다”며 “오려려 지금 필요한 건 선거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땃글땃글 운영 의혹’, 박원수 경남지사 후보 ‘딤페이 크 영상 제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불법

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는 선거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 총무본부장도 “국민의힘은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에 반대했던 게 잊그제 일”이라며 “우리 공동체 명운이 달린 계엄 방지에 관해 반대한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슨 방지법을 이야기한다는 건 국민들께서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기자

민주당 “서울·부울경 등 6곳 접전”

“전북지사 판세 호전되고 있어
대전·세종·충남·충북 안정적”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울 및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총 6개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접전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지방선거 판세를 묻는 말에 “6곳이 여전히 접전이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전북을 접전 지역으로 봐 왔다.

조 본부장은 이들 지역 중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김광영 무소속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전북지사 선거를 두고는 “도당 보고라든지 제가 1박2일 내려가 상황을 점검했다”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

이라고 했다.

충청권 격차가 좁혀진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선거 전략상 접전이 아닌데 접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곳은 안정적”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 판세를 두고는 “우리 김용남 후보가 조국 혁신당의 네거티브 공세와 일부 언론의 검증 공세, 국민의힘의 공격이라는 삼중 공격을 견디며 잘 버티고 있다”고 재차 평가했다.

소위 ‘정원오·박찬대 방지법’을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국민 마지막 호소일 텐데 후보자 비방과 정부에 대한 비방만 가득했다”며 “마지막까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선거를 일관하겠다는 의

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선거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오세훈(서울시장) 후보는 땃글땃글 운영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고, 박원수(경남지사) 후보는 딤페이 크 영상 제작에 공무원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두겸(울산시장) 후보는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비를 피하려 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며 “불법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시는 선거에 발 들이지 못하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 방지법”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을 두고는 “과거 권력에 기대 선거 국면을 끌고 가려는 구태 중 구태”라며 “상식적 국민은 비리로 감옥에 가고 국정농단으로 파면돼 감옥까지 갔다 온 두 대통령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시스

李 “사고 수습·인명 구조 최우선” 지시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에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고를 보고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대전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상황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고,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소방청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당시 현장에 7명이 있었으며 사고로 이 가운데 4명이 숨졌다. 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함께 만들어갈 모든 이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모두의 일상이 더 자유로워지도록
각자의 가능성이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나가 모두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모두의 도전과 성장 응원

-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패럴림픽 국가대표 및 종목·선수 후원)
- 시각장애인 K리그 AI중계서비스 도입(2026 에디슨 어워즈 수상)

장애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예술가 미술 공모전 개최

재활부터 자립까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재활·학습 보조 기구 지원 및 취업 교육
- 노후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차량지원



“승계 문제로 기업 사라지지 않게… 中企 세대교체 지원”

우리은행 ‘생산적 기업승계’
가업·3자 승계 위한 솔루션 공급
‘자녀 승계’ 고민 경영자가 과반
제3자 고려하는 경우 37% 달해
자녀승계 대안 MBO·EBO 제시

우리은행이 기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생산적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가업승계는 물론, 인수합병(M&A)이나 경영진·임직원 인수(MBO·EBO)를 통한 제3자 승계를 위한 솔루션도 공급한다.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지원해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장기생존을 지원하고, 일자리와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우리은행은 1일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승계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자체적으로 기업승계를 준비하기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기업승계 및 세무컨설팅을 공급하며, 경영 및 재무 상담도 제공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국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더 나은 기업 생태계를



1일 서울 회현동 우리금융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승계 문제로 사라지지 않도록 기업 승계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순환이나 사회적 분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자녀 승계’ 한계… ‘임직원 승계’ 대안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기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체결된 업무협약 건수는 약 740건이다. 기업승계를 고민하

는 경영자 중 과반은 자녀승계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자녀 이외에 제3자를 고려하는 경우도 37%에 달했다. 특히 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78.5%는 ‘자녀의 승계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를 이유로 꼽았다.

우리은행은 MBO·EBO를 자녀승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MBO 및 EBO는 경영승계 과정에서 경영진이나 직원에 소유권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이다. 임직원

이 경영 승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경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서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본부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MBO나 EBO와 같은 생산적 승계는 준비되지 않은 자녀승계보다 나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의 사례에서는 자녀 상속이 반복될수록 기업의 생존율도 낮아졌다. 준비가 미비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만큼, 혁신이 어렵고 시장 변화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승계 전(全) 과정 지원

우리은행의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 기업매각, 세무, 경영권 이전 등 기업승계의 전(全) 과정을 지원한다. 자녀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법률·세무 지원을 제공하며, 제3자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무진단을 제공하고 법인 전환도 돕는다. 외부 매각을 준비하는 경우 인수 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법률·세무지원과 연계한 금융 서비스도

공급한다.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수금융과 보증지원을 제공하며, 경영 안정을 위한 지분이전이나 지배구조 개선 과정도 지원한다. M&A나 MBO·EBO 등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는 신규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기업승계 이후에는 기업 경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대출 및 자금관리시스템을 공급하고, 재무·회계 분야의 자문도 제공한다. 특히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인사제도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조직구조 재설계도 지원한다. 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나아가 중·장기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윤성후 본부장은 “안정적인 기업상속을 위해 10년 이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승계가 이뤄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혁신도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發 수출 호황… 금리 인하엔 ‘변수’

5월 수출액 877.5억 달러 ‘역대최대’
고물가·고환율 등 인화 필요성 부각
수출 흑자·성장세 상향 ‘인상 요인’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경제의 성장 눈높이를 끌어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동발 물가 충격 속에서도 성장률 전망이 크게 올라가자 통화정책의 초점은 경기 방어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관리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877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1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9.4% 급증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42%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사실상 견인한 셈이다.

무역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5월 수입은 고유가 영향으로 60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20.8%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5월 무역수지는 269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1~5월 누적 흑자도 1019억1000만달러로

올라섰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통화정책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한은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방어할 명분이 커진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를 위한 완화 필요성이 약해진다.

한은의 5월 경제전망도 이 흐름을 반영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0.6%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정보기술(IT)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p 끌어 올릴 것으로 봤다. 추가경정예산과 증시 호황도 각각 0.2%p, 0.1%p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반영했다.

성장률 전망 상황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에는 긍정적이나 기준금리 경로에는 부담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물가와 금융안정 리스크가 남아 있을 경우 오히려 인상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물가 전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올렸고, 근원물가

전망치도 2.1%에서 2.4%로 상향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 가격을 밀어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안정 부담도 여전하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인위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도 다시 한은의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은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신현승 한은 총재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경제의 성장 버팀목이지만, 한은에는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 총재도 반도체 경기의 지속성을 통화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봤다. 신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망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세가 상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일시적 현상보다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 의견에 무게를 실는 게 옳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NH농협금융, 기업성장 ‘생산적 금융’ 속도

‘One-Firm협의체’서 방안 논의

NH농협금융이 가계여신과 이자주의 중심 영입의 한계를 넘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에 속도를 낸다.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량기업 고객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전문인력을 키워 그룹 차원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NH농협금융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6년 제2차 ‘One-Firm협의체’를 열고 그룹 차원의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을 비롯해 지주와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 방향과 실행 과제를 공유했다.

논의의 초점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외감·중견기업 중심의 고객기반 확대, 지역 산업금융 활성화, 현장 중심 기업금융 지원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금융 경쟁력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우량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고,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RM 육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주형 기자

대우건설, 건설현장 맞춤형 ‘AI번역기’ 개발

외국인 근로자 비중 지속적 확대
은어·전문용어 반영 정확도 높여

대우건설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실시간 AI번역기’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실시간 AI번역기는 국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단순히 기성 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우건설이 개발을 주관하고 기술파트너인 롯데이노베이트와 협력해 건설현장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우건설은 롯데이노베이트의 AI 실시간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음성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전문 용어를 반영한 ‘건설 특화 용어사전’을 적용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현장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표현이나 자주 쓰는 단어를 즉시 등록·수정할 수 있어 현장 상황에 맞게 용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가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AI번역기 기능에 대해 교육 중이다. /대우건설

또한 최대 180여 개 언어를 지원하며, 실시간 음성 처리 기술을 적용해 번역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부정확한 통역이나 내용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일부 작업반장에게 의존하던 통역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자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 효율을 높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韓 축구 응원 ‘BEST 11 적금’

오는 24일까지 3만좌 한도 판매
기본+우대 금리 최고 11% 제공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대표팀 경기 결과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BEST 11 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오는 6월 열리는 국제 축구대회를 기념해 마련됐으며, 대표팀 성적에 따라 최고 연 1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24일까지 3만좌 한도로 판매되는 BEST 11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

0%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8.8%를 더한 최고 연 11.0%이다.

우대금리는 자동이체 등록시 연 0.1%, 마케팅 동의시 연 0.1%가 각각 제공된다. 또한, 특별우대금리 조건은 ▲32강 진출시 연 1.5% ▲16강 진출시 연 2.0% ▲8강 진출시 연 5.5% ▲4강 진출시 연 8.8%로 대표팀의 최종 성적에 따라 적금 만기 해지시점에 차등 적용된다.

BEST 11 적금 가입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115@

고유가에 친환경차 질주... 완성차업계, 실적개선 '청신호'

기아 글로벌 중심 판매 성장세 지속
현대차 캐스퍼 등 전기차 판매 급증
르노코리아 하이브리드 모델 각광

중동상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친환경차가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 국내 4만4713대, 해외 23만2781대, 특수차량 221대 등 총 27만7715대를 판매했다. 국내는 0.6% 감소했지만 해외는 3.4% 증가했다. 전체 실적은 스포티지가 이끌었으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티지는 5월 글로벌 시장에서 5만2293대가 팔리며 기아 최대 판매 모델에 올랐다. 이어 셀토스가 2만9208대, K4가 2만1488대로 뒤를 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쏘렌토가 가장 많이 팔렸다. 쏘렌토는 지난달 7836대가 판매되며 기아 내수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특히 PV5가 2000대 이상 판매되며 기아의 목적기반차량(PBV) 라인업 확대에도 힘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기아 쏘렌토.



/기아 르노코리아 필랑트.

/르노코리아

을 보냈다.

기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SUV 하이브리드, 유럽에서는 대중화 전기차 라인업을 앞세운 지역별 친환경차 판매 전략을 통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판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맞춤형 판매 전략으로 판매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판매량 감소를 기록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압도적인 인기에 힘입어 견고한 실적을 이어갔다. 특히 10대중 8대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르노코리아의 친환경차 경쟁력을 입

증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국내 2893대, 수출 3020대 등 총 5913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랑 콜레오스가 1248대를 기록했으며 이어 필랑트가 1201대, 쿠페형 SUV 아르크나이가 444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판매된 모델 중 하이브리드 모델은 2295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79.3%에 육박했다. 필랑트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인 만큼 판매량 1201대 전부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고, 그랑 콜레오스도 1248대 중 1059대가 하이브리드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협력사 부품 수급 차질로 판

매량이 급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4만5364대, 해외 28만 109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총 32만547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23.1% 감소, 해외 판매는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해 눈길을 끈다. 전년 동기 대비 캐스퍼는 67.1%(1152대), 아이오닉 9는 70.9%(1482대), 아이오닉 5는 105.2%(2575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KG모빌리티(이하 KGM)는 지난달 국

내 3318대, 수출 4870대로 총 8188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국내는 6.8%, 수출은 12.1% 감소했다. 친환경차인 토레스 EVX는 99대, 무쏘EV는 755대 판매되며 각각 16.5%, -6.8%를 기록했다.

한국GM은 지난달 국내는 808대, 해외는 4만6273대로 총 4만7081대를 판매했다. 한국GM의 경우 친환경차 라인업이 없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기술린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철강업계, 임단협 본격화... 하청 교섭 등 쟁점

포스코, 협력사 직고용 변수 작용
현대제철, 성과급 등 노사 시각차

철강업계 양대 축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하면서 임단협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업황 부진과 보호무역 강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과급, 협력사 직원 직고용, 하청 노조 교섭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 등을 담은 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이르면 이달 초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포스코 노조는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노조는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기로 한 데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처분으로 쟁의권 확보는 놓쳤지만 노조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직고용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다. 지난달 말에는 쟁의대책위원회도 출범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달 8일 상견례를 진행한 뒤 27일까지 4차 교섭을 마쳤다. 노조는 지난해 대비 성과급 150% 이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지난 2021년 대비 2025년 전사 기술직 인원이 398명 감소했음에도 고로 매출량은 497만t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 감소 속에서도 생산성이 개선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조는 4차 교섭까지 사측이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차기 교섭부터 조합원 눈높이에 맞는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다음 교섭은 오는 2일 열린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이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된 점도 변수다. 인천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현대제철 하

청 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조들이 교섭단위를 따로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현재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현대제철 측은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역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철강업계는 수요 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탄소중립 투자 부담 속에서 고부가가치 소재와 신수요 확보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본업 수익성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707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지만,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3450억원으로 23.8%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 15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72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LIG D&A, USV 지능형 지휘통제 실증... 미래 전장 이끈다

다목적 무인수상함 '해검S' 가동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무인플랫폼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국방 기술의 실전 운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글로벌 AI 기업 필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협업한 지능형 지휘통제 솔루션을 통해 해외 고객 요구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LIG D&A는 지난달 27일 한국해양대에서 '무인수상정(USV) 지능형 지휘통제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AI 기반 다목적 무인체계 기술과 다기종 무인체계 통합

운용 역량이 공개됐다. 특히 LIG D&A는 국내 최초로 서로 다른 종류의 무인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하는 '다기종 무인체계 근접 연결'을 수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제 해상 자산과 정밀 시뮬레이터를 위성통신으로 실시간 연동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이다. 한국해양대 인근 해역에는 LIG D&A의 대표 무인수상정 해검3, 해검5와 3D 프린팅 기반 소형 다목적 무인수상정 해검S 2대 등 총 4척의 실제체가 투입됐다. 해검S의 해상 가동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LIG D&A는 향후 무인체계 시장을 선

도하기 위한 기술 전략으로 '오픈 플랫폼, 클로즈드 코어(Open Platform, Closed Core)'를 제시했다.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를 채택해 다양한 체계와의 연동성을 확보하고 개발 비용을 낮추는 한편, 독자적인 국방 데이터 학습과 폐쇄망 운용을 통해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영 LIG D&A 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연은 비전을 현실로 증명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연동 플랫폼을 지속 확장하고 조기 제품화를 추진해 글로벌 패키지 솔루션 수출까지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대한전선,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초고압 전략망 구축... 500억 규모

대한전선이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 계통 연계 프로젝트를 확보하며 초고압 전력망 분야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전라남도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에 154kV급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수주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해남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남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계통 연계 프로젝트다. 해남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전선은 이번 사업을 풀 턴키 방식으로 수행한다. 전력망 설계부터 케이블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전 과정을 일괄 맡는다. 풀 턴키 사업은 케이블 제조 기술뿐 아니라 현장 시공, 품질 관리, 계통 연계 경험 등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역

량이 필요하다.

대한전선은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에서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신안 비금 태양광 발전소와 도고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좌도 변전소로 연결하는 154kV 초고압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제조 기술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망 시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미국,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의 전력망 투자 수요에 맞춰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이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사업 경험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전력망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엘지넷플렉스' 출시

LG전자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TV와 콘텐츠 결합 구독 상품을 선보인다. 가전 구독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LG전자가 프리미엄 TV와 콘텐츠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고객 접점을 넓히려는 방침이다.

1일 LG전자에 따르면 엘지넷플렉스는 넷플릭스의 4K UHD 고화질 콘텐츠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OLED TV를 비롯해 구독 가능한 LG TV 전 모델로 이용할 수 있다. 월 구독료는 고객이 선택하는 TV 모델, 구독 기간(3~6년), OTT 서비스 요금제(스탠드·프리미엄)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달 1일부터 전국 459개 LG전자 베스트샵 매장(백화점 포함)에서 가입 가능하며, 향후 LG전자 공식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가전양판점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



LG전자가 넷플릭스와 결합 구독 상품 '엘지넷플렉스'를 1일 출시했다. /LG전자

대할 예정이다.

6월 한 달 간은 LG TV 단독 구독 시보다 저렴한 수준의 론칭 프로모션가로 가입할 수도 있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대화면 프리미엄 TV인 83·77인치 OLED TV(모델명 OLED83C6SNA, OLED77C6SNA)와 86·75인치 MRGB TV(86MRGB86KA, 75MRGB96BKA) 4개 모델이며, 엘지넷플렉스 가입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추가 할인된 월 구독료가 적용된다. /서현정 기자

중기부 산하기관, 中企 투자·규제·해외진출 지원 잔걸음

기보·중진공, 탄소감축 투자설명회
창진원, 모빌리티 규제합리화 논의
기정원, 한독 제조혁신 포럼 개최
투자유치·규제에 해소 지원
글로벌 R&D 협력 기반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투자 유치, 규제 애로 해결,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1일 중기부와 개별 기관들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더 포텐셜에서 '탄소감축 기술 분야 합동 투자설명회(IR마트)'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감축 분야 우수 기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넓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기보의 탄소카치평가보증, 텍소노미평가보증 등 녹색전환보증 지원을 받은 탄소감축 우수기업과 중진공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선정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기보와 중진공을 비롯해 국내 벤처캐피탈(VC), 신용보증기금 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더 포텐셜에서 '탄소감축 기술 분야 합동 투자설명회(IR마트)'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창진원

계자 등도 참석해 투자설명회와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했다.

두 기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탄소감축 기술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합동 IR마트를 통해 우수 탄소감축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은 같은 날 서울에서 '이동수단(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회의(라운드테이블)'를 열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정부부처·협단체·전문가·창업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

여한 협의체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창업 유관단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동차연구원 등 모빌리티 협·단체 그리고 오토노머스아이티, 라이드플렉스, 박버드 등 자율주행 및 이동수단 분야 창업기업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선 이동수단·자율주행 분야의 ▲원본데이터 활용 ▲가명처리 정보 활용 ▲위치정보 활용 등에 대한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같은 날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한·독 제조혁신 기술 및 R&D 협력 포럼'을 열고 국내 중소기업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의 기술 교류 촉진,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모색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독일 프라운호퍼 8개 연구소 소속 연구진 11명을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중기부 글로벌협력형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국제공동연구 기회부터 해외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공동연구 수행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1대1 기술 매칭 상담도 진행했다.

기정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매칭된 협력 대상 중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해 협력R&D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이번 포럼이 국내 중소기업과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간 기술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정원은 협력이 지속적인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소공연, 생존권 결의대회 열고 노동정책 직격

9일 국회 앞 결의대회 개최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반대
주휴수당 폐지·차등임금 요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고용은 없고 노동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치영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상화 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계속 비정상적인 것들만 만들고 있다.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이 될 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게 잘못"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 3000여 명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법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송 회장은 "법정단체인 소공연의 회원이 140만명 정도에 이르는데 3000명을 모

으기가 쉽지 않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그렇다"고 토로했다.

9일 예정된 집회에서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즉각 중단 등 근기법 확대 저지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실시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결권 및 교섭권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강력 반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불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다 함께 장사 접고 길거리로 나왔다는 소리과 다름이 없다. 일

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선 "최저임금 제도는 38~39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하고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강제하는 고용 정책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 이슈에 대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소상공인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우디 자푸라 2단계 수주

8400억 규모 EPC 계약 체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8400억 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며 중동 발전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전력공사·사우디아람코 컨소시엄과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2단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2단계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자푸라 가스전 인근에 건설된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완공 후에는 330 MW 규모 전력과 시간당 465톤의 증기를 생산해 인근 가스전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게 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설계, 기자재 공급, 설치, 시공,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수행

하는 EPC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사업에서 개발과 운영을 맡는 디벨로퍼로 참여한다.

이현호 두산에너지빌리티 Plant EPC BG장은 "2022년 1단계 프로젝트에 이어 2단계 사업까지 수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최근 중동에서 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카타르 수전력청(QEWC)과 약 2900억 원 규모의 피킹 유닛 가스발전소 건설공사를 계약했고 사우디에서는 약 2조 2000억 원 규모 루마1·나이라1 가스 복합발전소와 약 8900억 원 규모 PP12 가스 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그룹,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에 사과

경찰·소방, 사고 원인 조사 착수

1일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진 가운데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직원 다섯 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숨진 직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직후 순재일 대표이사 주재로 서울 본사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손대표는 회의 직후 대전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현장에는 대책본부를 마련해 소방·경찰 등 관계당국과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작업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작업실 안에는 작업자 7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는 유성선병원과 충남대병원으로 나누어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 세척작업실에서 추진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SK인텔릭스

로봇 보안 서비스 선배

자율주행·AI로 CCTV 사각 보안

SK인텔릭스가 웰니스로봇 플랫폼 '나무엑스(NAMUHX)'의 지능형 보안 서비스인 '세이프 케어(Safe Care)'와 라이브 뷰(Live View)'를 정식 출시했다. 1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이번 신규 서비스는 고정형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과 비전 AI를 결합한 '이동형 보안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세이프 케어(Safe Care)'는 AI가 스스로 침입자를 식별하고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능동형 보안 서비스다. 특히 나무엑스 전용 앱 '하이나무'를 통해 서비스 구독부터 로봇 제어, 위급 상황 발생 시 112·119 긴급 신고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김승호 기자

KAI

차세대위성 3호 운영

국가위성센터에 권한 이관

KAI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개발에 이어 초기 궤도상 운영까지 수행하며 위성 사업 역량을 넓히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28일 차세대중형위성 3호(CAS500-3)의 초기 운영 임무를 완료하고 운영 권한을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로 공식 이관했다고 1일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우주기술 확보와 우주과학 임무 수행을 위해 KAI가 총괄주관기관으로 개발한 위성이다. 지난해 11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돼 발사됐다. 위성은 본격적인 임무에 투입되기 전 궤도상 성능 검증을 거친다. KAI는 발사 직후부터 남극 세종기지와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위성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NC AI, 게임·시뮬레이션 기술 현실 산업문제 해결도구로 진화

포스코DX와 로봇 기술협력 협약
비전·언어·행동모델 최적화 집중
로봇·국방 등 피지컬 AI 적용 확대

인기 게임 '리니지' 개발사인 엔씨에서 분사한 NC AI가 피지컬 AI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학습과 디지털트윈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NC AI는 최근 포스코DX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연구와 디지털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에서 NC AI는 시각·언어·행동을 통합 처리하는 비전·언어·행동 모델 최적화에 집중한다. 포스코DX는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 테스트 환경 구축을 맡는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NC AI의 출발점이 게임 산업이라는 점이다. 피지컬 AI는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 간 차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게임사는 수십 년간 현실과 유사한 물리 엔진과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 왔다. 특히 캐릭터 움직임과 사물 충돌, 공간 인식 등을 구현하는 기술은 로봇 학습



NC AI는 최근 포스코DX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가 만든 이미지

에 필요한 가상 훈련 환경 구축과 맞닿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지컬 AI 경쟁의 핵심은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하느냐"며 "게임 엔진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한 게임사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NC AI의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앞서 회사는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다수의 무인 로봇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NC AI는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월드 모델'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월드 모

델은 AI가 물리 법칙과 공간 구조를 이해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차세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NC AI가 게임 AI 기업에서 로봇 AI 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제조업과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게임 산업에서 축적한 디지털트윈 역량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NC AI는 향후 로봇과 국방,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피지컬 AI 적용 사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게임 기술이 현실 세계의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진화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 AI 영역 확장

국방 AI 시장 선점 채비

러-우 전쟁 등서 AI 기술 활용
국방 AX 전담 태스크포스 출범
하이퍼클로바 X·클라우드 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거치며 인공지능(AI)이 전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드론 영상 분석부터 표적 식별, 정보 수집, 작전 지원까지 AI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방산 기업들의 국방 AI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국방 분야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시장 진출 채비에 나섰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일 국방 AX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국방 분야 AI-클라우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군 환경에 적합한 AI 모델 및 인프라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 신설은 단순한 신규 사업 확대 차원을 넘어 국방 AI 시장 성장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근 각국군은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AI를 활용한 전장 정보 분석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과 위성 영상 분석, 실시간 전황 파악, 표적 탐지 등에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과거 군사 정보 분석이 인력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추세다.

네이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자체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국방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영상·음성 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오픈도달 AI 기술이 국방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국방 AI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모델 성능보다 보안성과 데이터 주권 확보에 있다고 본다. 군 데이터는 대부분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해외 플랫폼보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드론·AI 접목... 피지컬 AI 공략 박차

'유비파이' 전략적 투자 단행
스마트시티 등 범위 확대 기대

네이버가 드론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하며 피지컬 AI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다.

네이버는 글로벌 드론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와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기술을 드론 분야와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비파이는 드론 군집비행 기술과 자율비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최근 국내 드론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1000만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드론 운영체제 'PX4'를 관리

하는 글로벌 단체인 드론코드재단 이사회에도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가 보유한 AI-클라우드·디지털트윈 기술과 유비파이의 드론 하드웨어 및 운용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율비행 드론과 AI를 접목한 피지컬 AI가 차세대 산업 분야로 부상하면서 스마트시티와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최근 로보틱스와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등 현실 세계와 AI를 연결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가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빛나 기자

"합리적 가격에 유튜브·구글AI 동시 이용"

LG U+, 2만9000원 결합 상품 선봬
LG유플러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구글 AI 프로 결합 상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합 상품의 강점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구글 AI 프로 구독료인 2만90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멤버십 등급 VIP 이상 고객에게는 4000원 추가 할인 해주는 VIP록 혜택도 있다.

공략 대상은 크리에이터와 같이 콘텐츠 소비와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용자다. 지난해 출시한 구글 AI 프로 결합 상품은 올리브영, 메가커피 쿠폰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했었다. 이번에는 영상 소비와 AI 활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고객들의 이용 패턴에 따라 이 같은 상품을 출시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상품은 자사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독에서는 콘텐츠, 쇼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유독 프로모션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핑,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총 41개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에어윌렉스, 아스날 FC 파트너십 행사 성료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스포츠 만남
파트너사·고객 등 180여명 참석

#.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모두가 휴식을 취할 시간인데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슈피렉홀에 아스날 FC의 응원 타월을 두른 젊은이들이 택시에서 내려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부터 열리는 아스날 FC와 PSG(파리 생제르맹 FC) 간에 열린 '2025-2026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온라인으로 관람하기 위해서다.

아스날 FC의 공식 스폰서인 글로벌 결제 및 금융 플랫폼 에어윌렉스는 지난달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이어진 '에어

윌렉스×아스날:아스날 매치 뷰잉 파티'를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구단 아스날 FC와 공식 파트너십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어윌렉스 주요 파트너사와 고객 및 인플루언서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스포티비(SPOTV), 아스날 코리아 서포터즈 클럽과 긴밀한 협력으로 기획됐다.

이날 경기에 앞서 진행된 특별 대담 세션에서는 최근 에어윌렉스 코리아 중소·중견기업 부문(SME) 책임자로 선임된 권윤아 총괄과 김근빈 엔터프라이즈 총괄, 이상훈 아스날 코리아 서포터즈 클럽 부회장이 참석했다. 양측 연사는 아스날

FC 파트너십의 전략적 의미와 글로벌 협력 기회를 비롯해 스포츠 팬들과 교류를 통한 시너지 확장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권윤아 총괄은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스포츠와의 만남으로 에어윌렉스가 글로벌 금융을 통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문화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에어윌렉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비즈니스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퀴즈와 기념 촬영도 이어졌다. 또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날 생중계한 아스날 FC와 파리 생제르맹(PSG)의 유로파리그(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기를 관람했다.

/조민선 기자

'AI 쇼핑 에이전트' 개인화 경험 확대

출시 3개월 만에 능동적 대화
이용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제안

네이버가 쇼핑앱 내 인공지능 AI 쇼핑 에이전트 기능을 한층 강화하며 개인화 쇼핑 경험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는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AI 쇼핑 에이전트가 출시 3개월 만에 사용자와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베타 버전으로 선보인 AI 쇼핑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정보를 요약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이용자의 쇼핑 이력과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먼저 쇼핑

방향을 제안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AI 쇼핑 에이전트는 클릭, 찜, 장바구니 담기 등 이용자의 쇼핑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화를 제안한다. 최근 밀키트를 자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혼자 먹기 좋은 상품을 추천하고, 장바구니에 수분크림을 담은 이용자에게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또 '10분 안에 조리가 가능한 1인분 밀키트'나 '1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3개 묶음 상품'처럼 세부 조건이 포함된 선택지도 함께 제시해 사용자가 복잡한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빛나 기자

박현주의 '국경없는 투자' 결실... 미래에셋 ETF 421조 돌파

韓·美·日 등 13개 시장서 운용
글로벌 ETF 운용사 세계 12위
지수형 ETF, 연금 등 투자수요 흡수
Global X 운용자산 986억달러 기록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AUM) 421조원을 기록하며 'ETF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한 글로벌 ETF 플랫폼이 세계 12위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국경 없는 투자' 전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월 말 기준 한국·미국·캐나다·호주·유럽·홍콩·일본 등 13개 시장에서 운용 중인 ETF 순자산이 약 42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ETF 리서치업체 ETFGI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글로벌 ETF 운용사 가운데 운용자산 기준 12위에 올라 있다.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글로벌 ETF 순자산은 2024년 말 200조원, 2025년 말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5월 421조원을 기록했다. 3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100조원 이상이 늘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이 자금 유입과 운용자산 증가,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

를 구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국내와 미국이라는 양대 ETF 플랫폼이 동시에 '1000억달러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TIGER·Global X, 글로벌 ETF 성장 이끌어

국내 대표 ETF 브랜드인 TIGER ETF는 5월 말 기준 순자산 160조원을 기록했다. 'TIGER 200', 'TIGER 미국S&P 500', 'TIGER 미국나스닥100' 등 대표 지수형 상품이 연금과 장기 투자 수요를 꾸준히 흡수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테마형 ETF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TIGER 반도체TOP10 ETF'는 국내 상장 테마형 ETF 순자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상장한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일 기준



미국 법인 글로벌 엑스(Global X) US 직원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개인 순매수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반영된 'TIGER 미국우주테크 ETF'는 순자산 2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우주 테마 ETF 시장 1위에 올랐다.

미국 법인 글로벌 엑스(Global X) US 역시 미래에셋 글로벌 ETF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18년 미래에셋이 인수할 당시 약 80억달러 규모였던 운용자산은 현재 986억달러로 약 12배 성장했다.

미국 내 ETF 운용사 약 460개 가운데 순자산 1000억달러를 넘긴 곳은 13개사에 불과하다. Global X가 1000억달러 고지에 올라설 경우 미래에셋은 국내와 미국 양대 시장에서 모두 1000억달러급 ETF 플랫폼을 보유하게 된다.

◆ '국경 없는 투자' 결실...ETF 넘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ETF 421조원 돌파를 미래에셋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성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대부분 국내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던 시기부터 글로벌 자산 배분과 해외 투자 확대를 강조해 왔다. 이후 미래에셋은 미국 Global X를 비롯해 캐나다·호주·유럽·홍콩·일본 등으로 ETF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집중했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전체 운용자산(AUM) 624조원을 기록하며 '600조원 시대'를 열었다. ETF 사업은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축으

로 자리 잡고 있다. 연금과 외부위탁운용 관리(OCIO),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축적한 운용 역량이 국내외 ETF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글로벌 사업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Global X Asia Semiconductor ETF'가 AI 반도체 투자 열풍 속에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미래에셋은 ETF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토큰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토큰화 플랫폼 온도파이낸스(Ondo Finance)를 통해 COPX, URA, PAVE 등 ETF의 토큰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3분기에는 홍콩 최초 커버드콜 ETF인 'Global X HSCEI Covered Call Active'의 토큰 클래스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경영 부문 총괄 대표는 "국내 TIGER ETF와 미국 Global X US라는 두 핵심 플랫폼이 나란히 1000억달러 규모에 도달하며 글로벌 ETF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TF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투자자들의 장기 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엔비디아 협력설에 LG그룹주 들썩... 줄줄이 신고가

LG전자 장중 38만500원까지 올라
피지컬 AI·로봇 사업 확장 기대감



LG전자 여의도 트윈타워 사옥 전경 /LG전자

젠슨 황 엔비디아(CEO)의 방한 소식에 시중 뭉치돈이 LG그룹주로 몰리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86% 상승한 38만500원에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LG이노텍도 4.94% 오른 153만원에 장을 마쳤고, 장중 178만80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LG씨엔에스도 26.27% 상승한 14만3700원에 마감했으며, 장중 14만7900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와 함께 지주사인 LG(13.10%), LG유플러스(1.80%) 등 다른 LG그룹사 종목도 줄줄이 상승 마감했다.

황 CEO는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나 피지컬 AI(인공지능)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LG AI연구원을 비롯한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계열사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최근 피지컬 AI와 로봇 사업 확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주사 LG의 순자산 가치(NAV)는 37조5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LG 그룹사들의 주가는 AI와 로봇 등 신사업에서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며 "지주회사인 LG는 단순 자회사 주가 상승으로 NAV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룹의 신사업 역량 부각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LG의 목표주가를 기준 11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그는 "그룹의 글로벌 핵심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I 모델 개발 기업들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AI 모델 개발 역량도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 KODEX ETF 순자산 200조 달성

국내 ETF 시장 점유율 약 40%

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상장지수펀드) 순자산 총액이 국내 자산운용업계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KODEX ETF 순자산은 201조4589억원으로 집계됐다. KODEX ETF가 20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 15일 100조원을 돌파한 지 226일 만이다.

운용사 측은 이는 국내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물론, ETF 리서치업체 ETFGI 기준(일본 제외)으로도 아시아 1위라고 설명했다.

삼성 KODEX ETF는 현재 236개에 이르며 국내 ETF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ETF 순매수가 47조7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43%인 20조6000억원이 KODEX ETF에 몰렸다.

국내 첫 ETF인 KODEX 200은 연초 이후 2조5000억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 중이다. 또 올해 개인순매수 상위 30개 가운데 절반인 15개의 상품에 KODEX ETF가 이름을 올렸다.

성과도 우수해 KODEX 200은 연초 이후 수익률 122.9%를 기록했으며, KODEX 레버리지[122630]의 수익률은 326.8%에 이른다.

KODEX ETF 상품은 100조원 돌파 이후 업계에서 가장 많은 17개의 신상품을 상장했다. 이 중 13개 상품의 순자산이 1000억원을 웃돈다.

/신하은 기자

상장 전부터 뜨거운 스페이스X... 글로벌 투자 과열 '경고음'

뮤추얼펀드·ETF에 21조 몰려

이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스페이스X의 주식에 펀드를 통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차츰 글로벌 금융투자 업계에 '스페이스X 열' 과열 경고를 커졌다.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영미권 뮤추얼펀드 3개와 상장지수펀드(ETF) 4개에 몰린 투자자 자금(순유입액)이 지난해 12월 IPO 계획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14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펀드 상품의 출시도 활발하다.

스페이스X에 대한 익스포저(투자액)를 갖춘 신규 ETF는 현재 최소 14개가 상장

을 앞두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포트폴리오(투자 대상 종목) 중 17.9%를 스페이스X에 투자한 영국의 대형 폐쇄형 펀드 '스코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는 최근 몇 달 새 순자산가치(NAV)에 약 7%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스페이스X 주식을 간접적으로 선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몰려 펀드의 몸값이 오른 것이다.

다른 스페이스X 주력 펀드로 꼽히는 '에든버러 월드와이드'와 '베일리 기포드 US그로스'도 올해 들어 일찌기 프리미엄 거래로 전환했다. 에든버러와 베일리 펀드의 스페이스X 포트폴리오 비중은 각각 18.9%와 13.8%에 달한다.

미국 자산운용사 페데레이티드 헤르메스의 조던 슈투어트 투자 이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모든 주체가 스페이스X 지분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며 "매일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펀드를 매수하겠다는 투자자 문의를 받는데 이런 열기는 과거엔 볼 수 없던 양상"이라고 전했다.

스페이스X 주식을 파생금융상품에 연계한 ETF도 출시 준비가 한창이다.

그레닛 셰어즈, 레버리지 셰어즈, 디렉시온 등 유명 ETF 운용사들이 스페이스X 주가를 따르는 레버리지(배수 투자) 및 인버스(역방향 투자) ETF 출시를 대거 금융 당국에 신청한 상태다.

이런 ETF는 스페이스X의 주가 움직임

을 증폭해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핵심으로, 그만큼 변동성 극대화도 원금 손실 위험이 커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다.

현재 스페이스X는 오픈AI와 엔트로픽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번 달 상장을 통해 최소 1조8000억달러(2700조원) 몸값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무분별하게 관련 펀드가 쏟아지는 '스파게티 캐논' 현상까지 나타나 스페이스X 투자 열풍이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FT는 짚었다. 스파게티 캐논은 '스파게티 면을 벽에 던져 달라붙는 기다란 쟁긴다'는 속담에서 유래된 관행으로, 인기 테마에 연관된 ETF를 공격적으로 대량 출시한 뒤 시장에서 살아남는 상품만 존속시키는 것이 골자다.

/신하은 기자



metro

인천항만공, 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 물류비 지원·대체시장 발굴 나서

인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업체당 100만원 한도 보조
중동·북아프리카 수출 대상
중고차 동유럽 판로 모색
물동량 감소에 시장 다변화

인천항만공사가 중동 사태의 장기화에 맞서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또 걸프국으로 향하는 선적이 사실상 중단된 중고차 업체를 위해 수출 대상지의 다각화를 시도한다.

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중동사태 대응 긴급 물류비 지원사업'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 9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파로 국제 해상운임이 크게 뛰었다. 최근 인천지역 수출기업 대상 피해에 이어 조사 결과, 해상운송비 상승과 선적 지연, 추가보관료 발생 등에 따른 물류비 긴급자금 지원 요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인천지역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 운송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긴급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중고자동차와 화장품, 산업재, 소비재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업 피해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유관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된 '중고차 수출역량 강화' 세미나. /인천항만공사

기관과 협력해 긴급금융, 물류,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인천 송도동에서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 대체시장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중고차 수출기업의 판로 다변화와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동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 뱃길 운임이 급등하면서 중고차 수출기업은 주력시장인 서아시아행 선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항의 올해 1분기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31%나 줄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 내 기업 약 50곳이 참석해 대체시장 내 추이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고차 시장 분석 전문가인 그린자동차평가센터 대표이사사가 나섰다. 신 대표는 "중동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시장 동향"을 주제로 동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유망시장의 최근 물동량 흐름과 수요 특성, 가격대, 유망 차종 동향 등을 소개했다.

중고차 유망시장 중 동유럽 수출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여, 대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유럽 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헤이먼의 조태신 대표이사가 떠오르는 동유럽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전략을 주제로 국내 기업의 동유럽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는 "국내 중고자동차가 동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은 "중고자동차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 물동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KOTRA 인천지원본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 중고자동차·부품 수출 상담회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했다. 특히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정보 제공부터 바이어 상담, 후속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수산자원공단, 바다숲 탄소거래 대통령표창

해양생태계 복원·탄소중립 기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기후블루카본실'이 해양생태계 회복 및 탄소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공단 소속 기후블루카본실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다숲 탄소거래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산 기반의 탄소중립 기여와 해양생태계 회복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혁신적인 해양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지난달 열린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에서 수여됐다.

공단은 또 갯녹음 현상(백화현상)으로 사라져가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은 물론, 생물다양성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분야 핵심 자원인 바다숲의 탄소 흡수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과 연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기후블루카본실'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결하는 바다숲 탄소거래 시스템구축 사업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김종덕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바다숲이 가진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바다숲 조성·관리 전문성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적인 블루카본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바다숲 탄소 흡수량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정부, 여름철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곡류·채소류 집중검사
해수부, 수산물 위생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하절기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기온·습도 상승으로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을 비롯해 2023~2025년 기간 생산·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컸던 품목 등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식품 1500여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의 유무를 검사할 계획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슬 수 있는 옥수수·대두·율무 등의 곡류와 콩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추, 복숭아 등 채소, 과일 1500여건에 대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다. 아울러 상추처럼 생식하는 채소 740건에 대해 유통

이전에 식중독균이 있는지 조사한다.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가 넙치, 조피볼락 등 횡감으로 쓰이는 수산물 1000여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팀,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해수욕장·항구 등지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한다. 횡집과 수산물 시장 등지의 수족관 물을 수거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위생관리 등을 지도한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검사,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팀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관리 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집단민원 70건 해결... 국민콜 110 통합 확대

공정위, 3만명 불편 집단갈등 조정
SI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도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집단갈등민원 70건을 해결하고 분산된 정부 상담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하는 등 국민 권익구제와 행정 혁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권익위는 지난 1년간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총 3만 498명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 장기 농성자 9명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했고, 관성적인 반복 민원은 약 15만 건 감축됐다.

지난 1월에는 전담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해 법정부처 갈등 해결 기반

을 다진데 이어, 이달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단갈등·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력한 현장 중심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해 총 850건의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 등을 관계기관 협의로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국민 불편이 컸던 공공기관 상담번호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약 700개에 달하던 공공기관 상담번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추가 통합했다. 권익위는 이를 2027년까지 34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민원 처리 혁신도 본격화됐다. 지난 2월 국토부, 식약

처, 인천시, 시흥시 등 4개 기관에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답변 추천과 반발 민원 일괄처리 기능을 가동했다.

이 외에도 싱크홀 사고 피해 배상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내 '지반침하' 항목 신설을 권고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원스톱 신청 및 재결서 음성 지원 서비스도 도입했다.

반부패 및 청렴 문화 확산 성과도 두드러졌다. 최근 1년간 부패·공익침해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1만 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었고, 보호사건 처리 건수 역시 1195건으로 154.3% 증가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중 국·공유지 위법 무상 양도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원(기존 최고액 12.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트립닷컴 환불 방해에 제재

통신판매업 미신고 항공권 판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 취소대금을 결제 수단인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다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

보를 제공하고 청약의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 역시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 업체는 아울러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트립닷컴 측은 항공권 취소 화면에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시 대금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울산시, 경제총조사 실시... “미래 경쟁력 진단”

한 달간 진행... 사업체 6만곳 대상 AI·로봇 활용 여부 등 산업변화 파악 “더 나은 지역경제 정책 만들어 갈 것”

울산시는 산업·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와 함께 국가 기본 통계조사의 하나로 5년마다 실시된다.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투입 구조와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해 조사 결과를 지역 산업·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는 응답자의 방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PC·모바일),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면 조사방식으로 병행 실시된다.

6월 한 달간 진행되는 온라인 조사는



울산시청 전경

각 사업체에 배부된 경제총조사 안내문 또는 조사원이 배부한 조사표에 기재된 참여번호를 이용해 경제총조사 누리집에서 참여 가능하다.

대면 조사는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본조사 기간인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사업체 약 6만 곳으로 이 가운데 약 2000곳이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약 5만8000곳이 일반 사업체다.

조사 항목은 산업별 지정된 조사표 7종 총 38개 항목으로, 공통 항목 12개와 산업별 특성 항목 26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경제활동

변화 양상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조사항목을 추가했다.

주요 신규 조사항목은 산업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및 로봇 활용 여부, 지능형(스마트) 농장 및 공장 운영 여부, 외국인 종사자 수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3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된다.

조사원들은 구·군별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으며, 국가데이터치의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 따른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AI 및 로봇 활용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이번 경제총조사는 울산의 미래 경쟁력을 진단하는 의미있는 조사”라며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나은 지역경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1분기 잠정 합계출산율 1.06명

경북도의 잠정 합계출산율이 6년 만에 다시 1명대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경북도의 올해 1분기 잠정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0명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9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었고, 혼인 건수는 793건으로 12% 증가했다. 조출생률도 4.6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높아졌다.

경북도는 만남 주선 프로그램과 출산 지원, K보듬 6000, 일자리편의점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확대 추진해 왔다. 또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과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울산시

‘반구천의 암각화’ 주화 제작

울산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가 기념주화로 제작된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유적이다.

기념주화는 액면가 3만원으로 지름 40mm 크기의 구리·니켈 혼합 소재로 제작된다. 판매가격은 4만6000원이며 총 2000장 한정 발행돼 소장가치를 높였다.

예약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과 농협은행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이도식 기자

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증액

전남 완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 농어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올해 9740명에 총 68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하고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법·수산업법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완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고추유통공사

항공물류·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

영양고추유통공사와 경운대학교는 지난 29일 ‘스마트 항공물류 및 농식품 제조·유통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학과 공사는 경북 관내 청년들이 지역 산업계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 고질적인 지역 청년 유출 문제를 막고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남도, 함양 양파 등 ‘월간 경남픽’ 공개

밀양 초동연가길·진주 정원박람회 남해 마늘·창녕 산토끼밥상 등 선정

경남도는 ‘월간 경남픽(Pick)’의 6월 소재로 함양 양파·밀양 초동연가길·남해 마늘·진주 정원박람회·창녕 산토끼밥상 5개 소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월간 경남픽’은 경남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특산물, 명소 등을 시의성 있게 알리기 위해 경상남도 홍보협의회 참여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월간 홍보 프로젝트다. 지난 5월에는 창원 미더덕, 거제 정글빵, 통영 박경리가념과 등을 소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6월 경남픽’으로 선정된 함양 양파는 청정 환경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뛰어난 단맛이 일품이다.

또, ‘남해 마늘’은 남해의 해풍을 머금어 향이 깊은 특산물이고, ‘창녕 산토끼밥상’은 농촌 빈집을 개조한 창녕의 새로운 미식 공간으로, 이방우동 안식당 하싸라이스 내동반점의 4가지 맛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진주 정원박람회’는 자연과 예술이



6월 ‘월간 경남픽’.

/경남=

어우러진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지방정원 지정 기념으로 열리는 열리는 행사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며, ‘밀양 초동연가길’에서는 초록빛 들판 사이로 피어난 꽃양귀비와 금계국을 감상하면서 거닐 수 있다. 특히 남해군과 진주시에서는 ‘6월 경남픽’ 선정 소재와 연계한 축제가 열린다.

경남도는 ‘6월 경남픽’을 바탕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하고, 매주 월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경상남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남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은하수산 등 명문향토기업 선정

23개사 신규 선정, 10개사 재인증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화신볼트 산업, 은하수산, 광명링크 등 오랜 기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 사회 공헌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부산 대표기업 33개사를 올해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업력 2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올해 선정기업은 신규 23개사와 재인증 10개사로, 이번 선정을 통해 부산시 명문향

토기업은 총 87개사로 확대됐다.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향토기업’ 명칭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으로 변경하고, 업력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정기업에는 인증 현판과 인증서가 수여되며, 정책자금 지원과 지방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부산도시가스요금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영화영화전당·시 전문 체육시설·동백상회와 민간 문화관광 플랫폼인 ‘홀리캠’ 제휴시설, ‘텐퍼센트커피’ 등 문화·관광·여가 분야 이용 혜택도 주어진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주시,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금 확대

5만원 추가... 총 19만7000원

전북 전주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에너지환경부 국비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금이 기존 14만7000원에서 5만원 추가된 총 19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등유·LPG 사용 가구 확대 지원 결정에 이어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가운데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용 이력에서 최근 구입 연료가 등유·LPG이거나 전체 사용액의 50% 이상을 등유·LPG에 사용한 세대가 포함된다. 또 2024년도 사용

이력에서 마지막 구입 연료가 등유·LPG였거나 현재 주 난방 연료로 등유·LPG를 사용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발급자는 선불카드에 추가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카드 분실이나 폐기 시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확대에 따라 카드 배부 기간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사용 기간은 10월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이후에는 카드 사용이나 이월이 불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며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대구시 “대구꽃박람회 놀러오세요”

4일 개막... 소설 ‘비밀의 정원’ 모티브

대구시는 국내 최대 실내 플라워쇼인 제17회 대구꽃박람회를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대구엑스코(EXCO)에서 제17회 대구꽃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꽃과 정원이 주는 치유와 화해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성장과 치유를 상징하는 소설 ‘비밀의 정원(The Secret Garden)’을 모티브로 대형 화훼조성관과 예술성 높은 작품들로 전시장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전시는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주제관을 비롯해 청라상관(장작 경연 10개 팀), 일반조성관(프랑스 초청관, 한국전통 꽃꽂이관, 영도벨벳관 등), 지자체관(경북도,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동시 개최 행사(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꽃해설사와 함



제17회 대구꽃박람회 현장.

/뉴시스

께하는 가이드 투어, 캘리그래피·테라리움·꽃바구니 체험, SNS 해시태그 및 구매 인증 이벤트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대구꽃박람회는 세계적 명장들의 감각과 우리 전통 화훼의 미학, 지역 대표 산업 기술이 융합된 뜻깊은 문화 행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엑스코를 찾아 꽃이 주는 치유의 에너지와 예술의 감동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검색 대신 AI로 상품 찾고, 리뷰도 간편하게”

유통업계 고객확보 전략 변화
 홈쇼핑, 챗GPT 전용 서비스 경쟁
 네이버, 쇼핑 방향·가격 선제안
 LF, ‘AI 리뷰 초안 받기’ 기능 도입

소비자들이 상품을 찾는 방식이 검색창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유통업계의 고객 확보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홈쇼핑과 패션, 플랫폼 기업들은 챗GPT 전용 서비스 출시와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 전략 도입에 속도를 내며 AI를 새로운 쇼핑 관문으로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홈쇼핑과 패션, 플랫폼 기업들은 챗GPT 전용 서비스 출시와 AI 쇼핑 기능 고도화에 나서며 생성형 AI를 새로운 고객 유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홈쇼핑 업체다. 홈쇼핑 기업들은 챗GPT 앱(Apps)에 전용 서비스를 선보이며 대화형 AI를 활용한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15일 챗GPT 스토어에 전용 서비스를 출시했다. 소비자가 일상 언어로 상품 추천을 요청하면 관련 상품 정보와 라이브 방송 일정을 제공하고 공식 앱 구매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생성형 AI가 새로운 쇼핑 관문으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가 AI 기반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를 통해 이달 1~25일 기준 챗GPT 등 대화형 AI 플랫폼을 경유해 자사 모바일 앱과 웹으로 유입된 고객 규모는 올해 초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 전략을 도입해 AI가 문맥을 이해하고 브랜드를 정확히 인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재구성했다. 현재 약 60만개 상품에 적용했으며 연내 10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도 챗GPT 전용 앱을 선보이며 AI 커머스 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용자는 챗GPT 내 대화를 통해 방송 편성표와 상품 정보, 혜택, 구매 링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웹사이트 접속 없이 인기 프로그램 방송 일정과 카테고리별 상

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추천 상품은 구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또한 실제 쇼핑 데이터를 연동해 고객 맞춤형 상품과 방송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은 “오늘 방송 프로그램 알려줘”, “주방 용품 방송 언제 해?”와 같은 자연어 대화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역시 쇼핑앱의 ‘AI 쇼핑 에이전트’를 사용자의 쇼핑 맥락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먼저 말을 거는 실행형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시켰다. 사용자의 클릭, 장바구니 이력과 최신 트렌드를 종합 분석해 “최근 찾아본 밀키트 중 혼자 먹기 좋은 상품을 찾아드릴까요?”와 같이 구체적인 쇼핑 방향과 가격

조건 선택지를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에이전트 기능 개선 후 사용자 수와 사용 건수가 전월 대비 각각 20%, 40% 증가하며 추천 상품 클릭 전환율도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다.

LF는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 AI 검색 환경에서 브랜드와 상품 노출을 확대하는 GEO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LF몰은 패션 전문몰 최초로 챗GPT 내 전용 앱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 전자 차원의 리뷰 TF를 출범해 ‘AI 리뷰 초안 받기’ 기능을 도입했다. 고객이 별점과 만족도를 선택하면 AI가 과거 작성 스타일이나 연령·성별 선호 표현을 분석해 맞춤형 리뷰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리뷰 작성의 번거로움을 줄여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GEO 전략을 바탕으로 브랜드 정보 노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유통업계 또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단순한 상위 노출 경쟁을 넘어 AI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매력적으로 브랜드와 상품을 추천받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레하우 R-7. /현대백화점그룹

현대L&C ‘레하우R-7’ 리뉴얼

현대L&C가 독일 레하우(REHAU)와 공동 개발한 B2B 전용 프리미엄 창호 레하우R-7을 리뉴얼해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레하우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창호 등을 공급하는 연 매출 5조원 규모의 글로벌 건축재 전문기업이다. 현대L&C는 지난 2017년부터 레하우와 전략적 기술 제휴를 맺고 한국형 프리미엄 창호 10종을 공동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리뉴얼해 선보이는 레하우R-7은 현대L&C가 지난 2017년 처음 선보인 발코니형 창호 레하우 R-7의 단열 성능을 한층 개선한 제품이다.

이번 리뉴얼 버전에는 이러한 기존 제품의 장점을 살리면서 냉기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창틀 구조도 추가했다. 또한 기존 제품보다 최대 17% 두꺼운 두께 28mm짜리 유리도 끼울 수 있도록 창쪽의 폭도 넓혔다.

/김서현 기자

하이트진로, 한강 공원에서 日 호케츠 레몬 팝업스토어

브랜드 출시 25주년 글로벌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페어링 콘텐츠 선배

하이트진로가 일본 RTD(Ready To Drink) 브랜드 호케츠(HYOKETSU)의 레몬맛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며 제품군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복숭아맛 ‘호케츠 모모’를 선보인 데 이어 레몬맛을 추가했으며, 브랜드 출시 25주년 글로벌 캠페인의 첫 행사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하이트진로는 일본 기린그룹의 RTD 브랜드 호케츠의 신제품 ‘호케츠 레몬’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은 레몬 과즙을 활용한 상큼한 맛이 특징으로 과일을 저온에서 추출한 뒤 투명한 과즙만 사용하는 ‘빙결 공법’을 적용했다. 알코올 도수는 5.3%, 용량은 500ml다. 기존에 판매하던 호케츠 모모 역시 500ml 캔 제품으로 변경해 판매할 예정이다.

호케츠는 2001년 일본에서 출시된 RTD 브랜드로, 일본 RTD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브랜드 출시 25주년을 맞아 한국을 시작으로 호주, 대



호케츠 레몬, 복숭아. /하이트진로

만 등에서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하이트진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크루즈 선착장 내 기린 이치방 프리미엄 비어바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냉각된 호케츠를 컵에 따르면 슬러시 형태로 변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일본 제과 브랜드 모리나가의 빙과류와 함께 즐기는 페어링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 전문 댄서 공연과 포토존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네이버를 통한 사전 예약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SG닷컴, 이커머스 첫 ‘미우미우’ 공식 입점

SSG닷컴이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 브랜드 ‘미우미우(Miu Miu)’의 공식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미우미우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공식 입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G닷컴 미우미우 공식 스토어에서는 의류, 가방, 슈즈 등 브랜드의 주요 카테고리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롯데 12개 계열사, 신입사원 세 자릿수 채용

MD, 경영지원 등 20여개 직무
 실무 역량 중심 ‘아이엠’ 전형 선발도

롯데가 2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실시하고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채용에는 롯데마트·슈퍼, 롯데건설, 롯데월드, 대형기획, 롯데하이마트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모집 분야는 MD(상품기획), 경영지원, 마케팅 등 20여개 직무이며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다. 지원자는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사별 전형 일정과 지원 자격 등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롯데마트·슈퍼와 롯데하이마트, 한국후지필름은 실무 역량 중심의 ‘아이엠(I’M)’ 전형을 통해 MD와 마케팅 직무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해당 전형은 학점과 어학 점수 등 정량적 스펙보다 직무 관련

역량과 비전을 중점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의 직무 관련 경험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진행하며, 현장 오디션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롯데는 채용 일정에 맞춰 ‘2026 상반기 롯데 잡카페’도 운영한다. 행사는 2일 서울, 5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롯데 잡카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채용 및 직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행사다. 올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적성 진단, 면접 등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롯데 신입사원 면접 후기를 담은 ‘채용 아카이빙북’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정밀화학, 롯데건설, 롯데호텔 등 주요 계열사 채용 담당자와 현직자가 참여해 채용 및 직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CJ온스타일, ‘바니스뉴욕’ 이너웨어 론칭

‘쿨·컴포트·시크’ 콘셉트

CJ온스타일이 자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바니스뉴욕의 신규 이너웨어 라인을 1일 선보였다.

바니스뉴욕은 미국 뉴욕의 고급 백화점 이름에서 착안한 브랜드로, 미니멀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이너웨어 라인은 쿨·컴포트·시크(Cool, Comfort, Chic)를 콘셉트로 착용감과 디자인을 동시에 강조했다. 무봉제, 노와이어, 노라벨 구조를 적용해 편안함을 높였으며 레이스 디테일과 미니

멀한 실루엣을 더해 패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컬렉션인 ‘RAW NY_BARNE YSFIT’은 봉제선을 최소화한 핏팅 공법을 적용해 착용감과 핏을 강화했다. 니트 레이스와 웨이브 디테일을 활용해 기존 심리스 제품과 차별화를 꾀했으며 브라탑, 캡 일체형 티셔츠, 라운지웨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CJ온스타일은 그동안 축적한 상품 기획 역량과 고객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너웨어 카테고리별 패션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11번가 상반기 최대 마트 할인

11번가가 1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최대 규모의 마트 카테고리 할인 행사 ‘마트 페스타’를 진행한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할인 판매하며 e쿠폰 특가전과 경품 이벤트도 함께 마련했다.

행사대표 코너인 ‘오늘의 전단특가’에서는 11번가 MD가 선정한 마트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 수준에 선보인다. 매일 오전 11시 인기 상품 3종을 한정 수량 판매하며, 1일에는 하우스 수박(6~7kg), 2일에는 한돈 생삼겹살(600g), 8일에는 양블랑 물티슈(70매×20팩)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

제철 신선식품 할인도 진행한다. 국내산 신비복숭아(1kg), 햇감자(5kg), 미니 오이(2kg), 자포니카만물장어(1kg) 등을 행사 기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브랜드 상품 할인전에는 CJ제일제당, 코카·콜라, 아모레퍼시픽, 농심, 삼양식품 등이 참여해 대표 제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신상품 간식도 마련했다. 꿀밤햇살을 비롯해 오리온 초코파이 망고라씨맛, 오리온 후레쉬베리 평리수맛, 농심 망고킥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심야마트’에서는 예코버 식기세척기 세제, 삼계탕, 완도 활전복, 미장센 파퓰레 세럼 등 다양한 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외식카페 프랜차이즈 e쿠폰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생어거스틴 전액 교환권 6만원권을 비롯해 메가MGC커피 시즌음료, 웨이크셋 세트 메뉴, 버거킹 세트 메뉴 등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마트플러스’ 플래그가 붙은 상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5000명에게 아이스아메리카노 e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태광그룹, K-뷰티 새판 짚는다... 신설법인·애경산업 투트랙

K-뷰티,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
신설 법인, '사핀' 첫 공개
해양 바이오, 항노화 제품화
애경산업, 북미·유럽 확대
AGE20'S·루나, 美시장 입점
독자 브랜드·유통망 시너지



애경산업은 자사 핵심 브랜드들을 미국 내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시켰다. /애경산업

태광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K뷰티를 낙점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독자적인 브랜딩을 위해 신설한 코스메틱 전문법인 '실(SIL)'과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애경산업'이라는 양 날개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태광그룹은 신설법인 실(SIL)을 공개해 새로운 화장품 사업의 출발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애경산업을 통해서도 중국 재편과 함께 미국, 유럽 등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태광그룹은 신설 코스메틱 계열사 실에서 첫 스킨케어 브랜드 '사핀'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사핀은 한국 바다에서 얻은 원료와 해양 바이오 기술을 집약한 뷰티 브랜드다. 기존 화장품의 피부 트러

블 개선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피부 스스로의 회복력과 재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한국 바다에서 추출한 켈프, 해양 심층수, 씨실트 원료에 해양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독점 성분 '리버스마린'을 활용한 항노화 제품군을 대거 출시한다. 오는 12일부터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대규모 브랜드 행사를 전개하는 등 국내 M

Z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를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최근 태광그룹으로 편입한 애경산업은 글로벌 유통망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힌다.

애경산업의 화장품 사업부는 글로벌 다변화 공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액 5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459억원 대비 13% 성장한 규모로 해외 성장 가능

성을 입증한 성과다. 브랜드 인지도 확산과 글로벌 마케팅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은 일시적 적자 전환을 겪었으나, 이는 북미와 유럽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인 선투자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문을 연 CJ올리브영에도 입점했다. 이번 입점으로 애경산업은 K뷰티의 격전지인 북미 오프라인 시장에서 핵심 브랜드 에이지 투웨니스(AGE20'S)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 등을 내놓는다. 에이지 투웨니스의 경우 브랜드 주력 제품인 에센스 팩트를 현지 소비자 피부 톤에 맞춰 20개 색으로 개발했다. 또 미국 전용 미니 사이즈, 일반의약품(OTC) 인증을 받은 선스크린 등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마련한다. 루나도 베스트셀러 제품인 컨실러를 20개 색상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피부색과 인종을 갖춘 북미 소비자를 정조준한다.

태광그룹 측은 "애경산업의 중장기 화장품 전략과 신설법인 실의 혁신성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룹 차원의 글로벌 뷰티 영토 확장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29일 공식 개점한 올리브영 미국 패서지나점 매장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K뷰티 쇼핑을 하고 있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미국 첫 매장 '흥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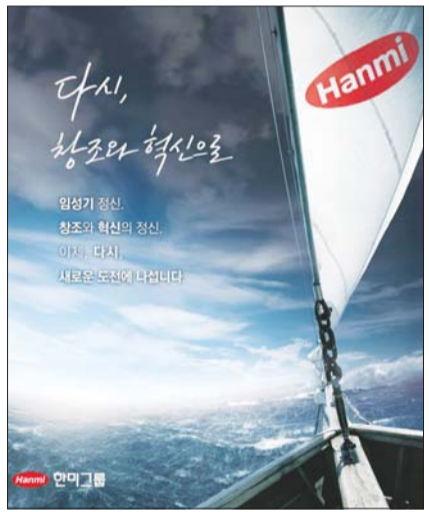
K-뷰티 체험에 현지 고객 몰려

CJ올리브영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시에 미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중 L.A 대표 상업 중심지이자 대형 쇼핑 상권인 웨스트필드 샌주리시티 쇼핑몰에 '올리브영 샌주리시티점'을 연이어 개점할 계획이다.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은 30일과 31일에도 방문객이 몰리며 종일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매장 내 안전과 쇼핑 편의를 위해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약 200명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입장 대기와 계산 대기 줄이 영업 마감 시간까지 이어질 정도로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직원들이 외치는 올리브영의 시그니처 현대 멘트가 이어지면서 매장 내부에는 생동감과 유쾌한 분위기가 넘쳤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희귀질환 신약으로 글로벌 무대 넓힌다

릴리와 소네페글루타이드 기술수출
단장중후군 치료제 글로벌 임상 탄력
랩스커버리 기반 신약 경쟁력 재확인



한미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 /뉴시스

한미약품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에 희귀질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을 조 단위 규모로 기술수출하며 글로벌 희귀약품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한미약품은 일라이 릴리와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 개발, 제조 및 상업화를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릴리로부터 확정 계약금 7500만 달러(약 1129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향후 임상 개발과 규제 승인, 상업화 마일스톤 달성 시 최대 11억8500만 달러(약 1조7844억원)를 추가로 받는다. 제품 출시 이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 발생한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2(GLP-2)의 장 성장 촉진, 염증 완화, 장 점막 보호 및 재생 등 생물학적 효과를 갖는다.

현재 선전성 또는 후천적 이유로 소장

의 흡수 기능이 저하되는 희귀질환인 단장중후군을 적응증으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해 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임상 2상을 완료 시점까지 주도하며 릴리는 축적된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임상을 추진한다.

한미약품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미약품의 선전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후보물질 '에페게글루카곤(HM 15136)'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혁신치료제로 지정받는 등 임상뿐 아니라 상업화 가능성이 높았다.

이 물질은 세계 최초 주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임상 2상 중간 결과에서 저혈당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우수한 안전성이 확인됐다. 올해 하반기 최종 임상 2상 결과 발표를 앞둔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측은 "랩스커버리의 독보적 특성은 투약 주기를 늘려, 투여 횟수 및 증량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이 체감하는 임상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 경쟁력도 입증됐다. 랩스커버리는 약물 반감기를 늘려 장기지속형 기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네페글루타이드, 에페게글루카곤뿐 아니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1호 국산 비만약으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역시 랩스커버리 기술을 활용한 대표 물질이다.

한미약품은 랩스커버리 기반의 장기지속형 약물 기전을 다양한 질환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 수출규제 자문지원 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출규제 자문위 출범

해외 진출 기업 현장 지원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현장 지원체계 구축하기 위해 수출규제지원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위촉식 및 제 1차 자문회의는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제도와 복잡한 규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실무 중심의 해결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업, 인허가(RA), 컨설팅, 법률 및 특허, 정책 등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업계 전문가 총 21인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침향 품질평가 객관화 시동

한국분석과학회서 연구결과 발표

광동제약은 '제76회 한국분석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침향의 품질 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침향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침향의 주요 성분인 유데스몰(eudesmol)을 지표로 삼아 표준화된 분석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침향은 침향나무가 외상이나 균 감염 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수지가 오랜 시간 목재에 축적되어 생성되

는 원료다.

일반적으로 수지 함량이 높을수록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원산지나 생성 환경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고, 평가 방법 역시 향이나 외관 등 감각적 요소에 의존해 정량적 품질 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동제약 연구팀은 유데스몰의 α·β·γ형 세 가지 이성질체에 주목해 이들 성분의 함량과 수지 특성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는 국내 유통 침향 시료 9종을 대상으로 함량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코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북미 공략

캐나다 보건부에 CT-P55 허가 신청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티스(COSENTYX)' 바이오시밀러 'CT-P55'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캐나다에서 보유했던 전체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허가 신청은 건강한 피험자 1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해당 임상에서 CT-P55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물동태학

적(PK) 동등성을 입증했으며, 안전성 및 면역원성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캐나다 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글로벌 의약품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코센티스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약 66억8800만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는 바이오시밀러 도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있어, 대표적인 천(靑)바이오시밀러 국가로 평가된다.

/이세경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SK바사, 송도 신사옥서 가족들과 '소통의 시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달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구성된 가족들을 송도 본사로 초청해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가운데)이 행사에 참가한 구성원 가족들을 환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지원
CJ나눔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플랫폼인 CJ도너스캠프가 전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에 본격 나섰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와 '2026 CJ도너스 캠프 대학생봉사단'의 통합발대식에서 대표 학생들이 선서를 진행했다. /CJ나눔재단



웅진프리드라이프, 서울현충원서 묘역 정화 봉사
웅진프리드라이프가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호국영령을 기리는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웅진프리드라이프 임직원들이 지난달 2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웅진프리드라이프



넷마블조정선수단, 전국장애인조정대회서 21개 메달
넷마블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넷마블조정선수단이 전국장애인조정대회에서 금메달 12개를 포함한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왼쪽부터 넷마블조정선수단 강이성 선수, 이봉희 선수, 김정희 감독, 배지인 선수, 전승보 선수, 한은지 선수, 이승주 선수, 추연희 선수, 강현주 선수, 서하경 코치. /넷마블



SOOP, LCK 비시즌 프로게이머 특별 편성
SOOP은 6월 한 달간 프로게이머 특별 편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편성은 LCK 공식 경기 공백기에도 팬들이 선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팬과의 합동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T1 페이커. /SOOP

삼성호암상 영예 안은 6인... 인류 발전 공로 인정

2026년도 제36회 시상식
과학·의학·예술·봉사 등 분야
오성진·조수미·오동찬 등 선정

호암재단이 학술·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선정해 삼성호암상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기초과학부터 공학, 의학, 문화예술, 사회봉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실천으로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호암재단은 '2026년도 제36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6월 1일 오후 4시 서울신라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호암상은 호암 이병철 선생의 인재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려 학술·예술 및 사회 발전과 인류 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현창하기 위해 1990년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제정했다. 올해 제36회 시상까지 총 188명의 수상자들에게 379억원의 상



과학상
물리·수학
오성진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윤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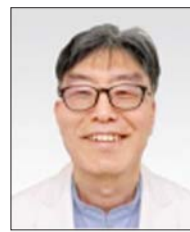
공학상
김범만



의학상
에바 호프만



예술상
조수미



사회봉사상
오동찬

금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 부문 오성진(37) 美 UC버클리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부문 윤태식(51) 美 위스콘신대 매디슨 교수 ▲공학상 김범만(79) 포스텍 명예교수 ▲의학상 에바 호프만(51)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예술상 조수미(63) 소프라노 ▲사회봉사상 오동찬(58) 국립소록도 병원 의료부장 등이며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씩 총 18억원이 수여됐다.

시상식은 수상자 가족, 지인, 삼성 사장단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어도선 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 부문별 시상과 수상소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스벤 리드 스웨덴 왕립학술원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호암재단은 시상식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황식 이사장은 "탁월한 업적으로 호암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자랑으로 생각한다"며 "정의적 지혜와 학문적 열정,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따뜻

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온 수상자들의 뜻깊은 업적을 높이 기린다"고 전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호암상은 학술·예술·사회봉사 분야를 아우르며 인간 정신의 본질적 가치인 이성과 실천, 그리고 아름다움을 함께 기리는 상"이라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과 인간의 존엄을 실천하는 노력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한림대의료원,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성과 인정

한림대학교 의료원이 지역 사회에서 흡연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며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은 지난달 29일 전경련 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는 '2025년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선정된 우수기관이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학교 밖 청소년, 감정노동 근로자, 외국인 등 흡연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 지역사회 협업 기반 '공공임대금연아파트'가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S칼텍스, AI로 만든 '에너지 갤러리'

임직원 가족들과 작품 제작

GS칼텍스가 임직원 가족이 참여한 작품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작품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온라인 전시관을 열고 에너지의 가치를 문화 콘텐츠로 풀어냈다.

GS칼텍스는 임직원 가족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인 'GS칼텍스 Art Festa' 작품을 모은 온라인 전시회 '에너지 갤러리'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시 서부장애인차과병원장 구기태

부음 ▲김중구씨 별세, 김종선(제이드케이파트너스 대표, 전 코스닥협회 전무)·종필(효성 안전보건팀장)·한진(디바테크놀로지 대표)·은미·동미(한국네일미용사회 이사)씨 부친상, 송훈(농곡고 축구감독)씨 장인상 = 1일,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061-350-8044

▲박귀현씨 별세, 박주희(한국예탁결제원 홍보부 팀장)씨 부친상 = 1일, 빈소 비공개, 발인 2일 오전 11시, 장지 세종은하수공원.

▲백인호씨 별세, 전종윤(유진투자증권 브랜드전략팀장)씨, 종해(우리함께재가복지센터 대표)씨 모친상 = 5월 31일, 경북 경산시 옥산전문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2일 오전 5시 30분, 장지 경산공원, 053-801-4444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사 ▲KDI거사·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 김미루 ▲KDI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정성훈 ▲KDI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 황순주

◆제일약품 ▲박준석 전무(중앙연구소 부소장)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개혁추진팀장 이철희

◆IBK투자증권 ◇임원 승진(전무) ▲준법감시본부장(준법감시인 겸 CPO) 김재교 ◇임원 전보(전무)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CCO) 문찬걸 ◇임원 신규선임(상무대우) ▲리스크관리본부장(CRO) 김민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진료처장 김선영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현홍근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장 여인성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손원준 △서울



현대차 차박원정대의 원정대장 이경규가 아이오닉6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현대차, 이경규와 월드컵 원정 응원

'차박원정대' 시리즈 영상 제작

현대자동차가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위한 원정 응원에 나선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모빌리티 부문 공식 후원하고 있다.

현대차는 'FIFA 월드컵 2026'을 맞아 현장의 열기와 감동을 전하기 위해 방송인 이경규와 함께하는 디지털 콘텐츠 '차박원정대 with 현대자동차(이하 차박원정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차박원정대는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월드컵의 역사를 함께한 원정대장 이경규를 중심으로 축구 선수와 이벤트 당첨 고객 등 총 11명으로 구성, 국

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본선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시리즈 영상이다.

현대차는 FIFA 월드컵 2026 공식 파트너로서 월드컵 캠페인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Next Starts Now)'의 일환으로 선보인 이번 콘텐츠를 통해 국가대표팀에 대한 응원뿐만 아니라 대표팀과 현대차가 공유하는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비전을 유쾌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차박원정대는 1일 첫 번째 콘텐츠 공개를 시작으로 총 5편을 선보인다. 이경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현대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주요 장면만 담은 숏폼(Short-form) 형태로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중견련, 상근부회장에 김현철 원장

"중견련 위상 제고 위해 소통·협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사진)이 1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김현철 상근부회장은 제28회 기술고시 출신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환경과장, 주네덜란드대사관 주재관, 산업기술정책과장을 거친 이후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이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21년 12월부터 산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8월 퇴임 후 같은해 10월부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보이지 않는 보호, 피부는 더 편안해진다.

보호를 넘어, 피부를 위한 케어
샬롯 루시드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습 케어를
동시에 담은 UV 차단 투명 패치

- # 눈밑부터 광대까지 완벽 커버
- # 숨 쉬는 통기성 나노 원단
- # 접착제 없이 밀착되는 수분 기반 패치
- # UV-A 98% / UV-B 99% 차단
- # 0.05mm 초슬림 투명 패치
- # 無계면활성제로 안심 사용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솔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역대 최고 지선 사전투표의 의미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날아든 '사전투표율 23.51%'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묵직하다.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이 이미 주권을 행사했다는 뜻이자, 4년 전 지방선거(20.62%)를 훌쩍 뛰어넘은 역대 최고 기록이기 때문이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고 '동네 선거' 정도로 평가받던 지방선거에서 왜 이토록 뜨거운 열기가 분출된 것일까.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이 숫자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하느라 바쁘다. 한쪽은 야당을 향한 '내란 심판의 지'의 발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으려는 '국정 심판론'과 지지층 결집의 증거라며 승리를 자신한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보면 여야 지지층의 '사활을 건 총결집'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 공학적 유희를 떠나, 이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전투표의 생활화'를 넘어선 능동적 주권 행사 양식의 정착이다. 과거 사전투표가 단순히 '본투표 날 쉬기 위해 미리 하는 투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본투표의 연장선이자 하나의 거대한 '투표 주간(Vote Week)'으로 자리 잡았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유연하고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치적 효능감의 심화와 대결 국면에 대한 민심의 조기 응답이다. 비상계엄의 파장과 탄핵 정국 등 최근 몇 년간 격변해 온 대한민국 정치 지형 속에서 유권자들은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강력한 학습 효과를 거뒀다. 이번 사전투표율 최고치 경신은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막론하고 우리 동네의 삶을 바꿀 리더를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사라도 빨리 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 국면이 유권자들을 방관자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판과 지지의 장으로 일찍 불려낸 것이다.

셋째, 중앙 정치의 그늘에 가려진 '지역 소

멸과 삶의 위기'에 대한 아우성이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 아니라 내 집 앞의 가로등, 우리 아이의 교육, 지역 경제의 생존을 결정하는 무대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이 투표소로 발걸음을 재촉했음을 방증한다. 여야가 중앙 무대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의 해법을 찾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데 대한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23.51%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결코 정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선언이다.

이제 시선은 6월 3일 본투표로 향한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단순히 투표 분산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전체 투표율 견인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심의 거대한 도도함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만한 평가대신 민심의 엄중한 경고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때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임상·R&D·투자' 삼각 글로벌 프로듀서



이지 청 하
(유통&라이프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 공식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 글로벌 비파마에 넘기고 로열티를 창출하는 방식은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 리스크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일궈낸 제조업 중심의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바이오 위상을 다진 거대한 축임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은 캐시카우와 지식 재산권(IP)을 활용해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전략 사령탑이 되는 추세다. '글로벌 임상·R&D·투자'를 유기적으로 엮는 신(新) 삼

각 구조를 발판 삼아, 변방의 공급 기지를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프로듀서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 지분을 글로벌 비파마 일라이 릴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약사가 해외 바이오벤처를 육성해 글로벌 비파마에 매각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회수한 실질적 사례다.

한미약품은 중국, 북미 등으로 직접 진출해 있다. 한미약품의 중국법인 북경한미약품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0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알짜 캐시카우로 성장해 있다. 북미 자회사 HS 노스 아메리카를 통해서도 캐나다 바이오텍 애플츠 바이오사이언스 인수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미국 자회사인 메타비아에서 비만 치료제 등을 개발하며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한다. 전통 제약사는 물론 HL

B의 경우에도 일찍이 미국 자회사 엘레바와 베리스모를 확보해 각각을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에피소홀딩스 역시 글로벌 R&D 거점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 100% 출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중국 R&D 센터를 설립했다. 바이오 첨단 기술산업단지인 명문 대학들이 인접한 현지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 이뤄낸 기술 수출 전략과 제조 역량이라는 자양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모습들이다. 임상과 R&D, 과감한 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삼각 구도가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거대 규모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판도를 신약, 임상, 공급 등 다각도에서 설계하는 프로듀서로 도약하길 바란다.

/mlee236@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일 (음 4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손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60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72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84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  **49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될것입니다. **61년생** 운대가 그리 좋지 못하니 매사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73년생**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85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50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62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4년생** 거래가 성사되거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문서에 인연이 있으니 희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  **51년생**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63년생**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 피곤합니다. **75년생** 스스로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87년생** 친구나 지인들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  **52년생**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64년생**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76년생** 마음이 지치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88년생**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53년생** 다치거나 분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5년생** 여행이나 외출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77년생**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필요합니다. **89년생** 점점 운기가 좋아지니 계속 노력하세요.
-  **54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66년생** 경계망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북쪽 방향이 길하니 이동이나 선택에 참고하세요. **90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합니다.
-  **5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잘 풀립니다. **67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79년생**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91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더 큰 것을 얻습니다.
-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  **57년생** 유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직장운이 풀려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81년생** 동료나 친구와 협력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93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  **58년생** 주위와 잘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82년생**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길한 하루입니다. **94년생** 친구와 연락하고 만나면 즐겁습니다.
-  **59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년생** 희식이나 모임에 가면 행운이 있습니다. **8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지나친 음주나 과식은 금물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물극필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무척이나 익숙한 속담이다. 뜻은 단순하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그저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라 삶에 희망을 주는 말이다.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꿰뚫어 보는 말이기도 하다. 사람의 인생살이는 괴로움과 기쁨의 순환이다. 괴롭기만 한 인생이 없고 기쁘기만 한 인생도 없다. 어느 인생살이든 괴로움과 기쁨을 모두 맛보면서 살아간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변화이다. 괴로움과 기쁨이 어떻게 변화하고 찾아오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물극필반(物極必反)으로 명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흥망성쇠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세상의 어떤 것이든 흥하는 때가 있으면 그와 정반대로 망하는 때도 있고, 번영을 이루었다가 쇠락하기도 한다. 사업을 벌여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면 운이 다했다고 여긴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하나의 운이 다했다면 또 다른 운이 다가오는 시작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을 타고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쇠락할 뿐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은 삶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구나 괴로운 일을 겪는다. 돈 문제나 직장에서의 괴로움이 평생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또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앞길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이 괴로움의 끝에 달한 시기일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의 흐름을 따라 꾸준히 견디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꽃길에 걸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1			7	3
		2		9	1	6
6	8	4	3			7
		1			4	
3	4			1	8	6
9		2	5	3		
	8	9		4	3	2

1	8		9		2	3	5
							1
		5		3	1		9
	2	3	4	5			
							9
9				1	7	6	2
	3		8	2		4	
	6						
5	4	2		7		9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8	7	2	9	6	8	1
1	9	8	8	7	9	2	2	6
2	6	9	8	1	2	9	7	8
2	8	6	9	2	8	9	1	7
6	9	7	2	9	8	1	6	2
7	1	2	2	8	6	8	9	9
6	2	9	1	8	7	8	9	2
9	7	1	6	9	2	2	8	8
8	8	2	9	6	1	7	2	9

9	8	6	2	2	1	2	7	9
2	2	8	9	7	6	1	9	8
1	9	7	6	2	8	9	8	2
2	2	9	2	1	9	7	8	6
2	7	1	2	8	9	6	9	8
7	6	8	1	8	2	9	2	9
8	1	9	7	9	2	2	6	2
9	2	2	9	6	2	8	1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교육부, 학교현장 혁신 본격화 'AI 융합형 교육실' 167억 투입

지원대상 학교 118개교 최종 선정 미래형 융합교육·학습 환경 조성 AI 기반 탐구·문제해결 역량 강화

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설계·제작해 실제 문제 해결 방안을 구현하는 교실이 전국 118개 학교에 들어선다. 기존 설명 중심 교실을 넘어 과학·수학·정보 등 여러 교과를 연결하고, 화재 현장 소방차 적용 탐구나 기상재해 취약계층 보호 장치 제작처럼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한 미래형 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6년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 지원 대상 학교 118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총 167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인 구축·운영 지원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된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 미래형 융합교육·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전국 지원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공간 활용 계획의 구체성, 운영 역량, 융합교육 지속 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18개교를 선정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47개교, 특수학교 4개교가 선정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9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개교, 경남 11개교, 인천·충남·경북 각 8개교, 전북 7개교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 학교는 2026년 하반기까지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 공간 구축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실은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교육(STEAM) 동아리,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등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활용된다.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은 교과별 지식을 따로 배우는 기존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 과학·수학·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탐구, 설계·제작 활동, 협업 기

반 프로젝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꾸려진다.

공간 모델은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교실 1개에서 1.5개 규모로, 교과 수업과 연계한 AI 기반 탐구·문제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탐구 경험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확장형은 교실 2개 이상 규모의 확장형·가변형 공간으로 조성된다. AI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 데이터 분석, 최적화 AI 모델 구현, 실증 등 창작·연구 중심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 학교가 공간 구축 이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단계별 운영 상담, 운영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학교별 교육과정과 여건에 맞는 운영 사례를 발굴해 다른 학교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운영

'지구를 위한 실천' 주제 마련

작은 오늘부터!'를 주제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을 맞아 학생·학부모·시민이 참여하는 '2026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단위학교와 서울 시내 영화관, 교육지원청별 운영 장소,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계기로 6월을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함께하면 가능해! 지구를 위한 실천, 시

행사는 학교와 11개 교육지원청, 서울시 광역·기초환경교육센터, 환경분야 기관 및 기업 등이 협력해 추진한다. 서울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 대상이다.

올해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 중심 프로그램인 '실천마당'을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분산 운영한다. 지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경희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

물방울 등 일상 움직임에서 전기 생산



김대원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 /경희대

경희대학교 김대원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물방울과 심장박동 등 일상적 움직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잇달아 개발했다.

1일 경희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먼저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하이브리드 발전 소자를 구현했다. 이 기술은 마찰전기 발전기와 자기탄성 발전기를 결합한 구조로, 물방울의 이온 에너지와 낙하 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전극 소재로 레이저 가공 불소화 그래핀을 적용해 수분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식 문제를 개선했다. 또한 외팔보 구조에서 착안한 탄성 지지체를

도입해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충격을 전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재 분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한강변에 다목적 국제 경기장 세운다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윤곽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1999억 투입

서울시가 광나루역 인근 한강변에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목구조 다목적 국제경기장을 조성한다. 태권도·유도·레슬링 등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전문체육 시설에 생활체육과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체육시설이다. 48년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가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조성할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결과,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이색, 디디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투시도. /서울시

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광장동 401-14 일대 체육시설 부지 5만916㎡ 규모다. 복합체육 시설은 국제 규격의 전문체육시설과 체육 부대시설, 편의시설, 공영·부설주차장 등을 갖춘다. 태권도와 유도, 레슬링 등 투기 종목 국제경기 개최와 선수 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며, 평상시에는 주민 생활체육과 문화공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총사업비 199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당선자와 설계계약 체결 후 약 18개월간 설계를 진행하고, 2028년 4월 착공해 2031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경제총조사... 사업체 80만곳 대상

경기도가 도내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사업활동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2025년 기준 경기도 경제총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체 80만4315곳으로 전국사업체의 약 24.1%를 차지한다. 전국 사업체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있는 셈으로, 경기도 산업구조와 경제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로 평가된다. 조사는 온라인과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사업체에 사전 배부된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입력해 참여할 수 있다. 방문면접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한양사이버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

내달 16일까지 원서 접수

한양대학교가 설립한 사이버대학교인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7월 16일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 39개 학과와 석사·박사과정 2개 대학원 9개 전공을 운

영하고 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신입학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이상이다.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학업수행검사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한양사이버대는 직장인, 주부, 만학도, 소상공인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학생의 실제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학부 모집과 별도로 한양사이버대학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원 내 일반전형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69명, 박사과정 50명이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48

6월 2일 (화)
음력 : 4월 17일

수도권 날씨
19~3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4/31, 동두천 16/32, 가평 15/32, 파주 14/31, 서울 19/33, 양평 17/32, 인천 17/32, 수원 19/32, 용인 19/32, 평택 18/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 휴전협상 난항 중 이란 공습... 이란 "미군 기지 보복 타격"
▲ 美, 이스라엘-헤즈볼라에 중재안 제시... 양측 군사행동 중단 요구



▲ 우크라 젤렌스키 "美 특사단 2주안에 키이우 방문할 수 있어"
▲ 엔비디아 젠슨황 CEO, 4일 방한... 주요 기업 총수와 회담 진행

▲ 中, 美 AI칩 수십만 개 우회 수입... 美 뒤늦은 수출 차단 조치
▲ 日 다카키치 지지율 66%... 청년·무당층 지지 후퇴에 소폭 하락



유통업계 AI 활용한 고객확보 나서 L1



Life

태광그룹 K-뷰티 새판 짜다 L2



정보는 철통방어, 사회엔 디지털 포용... 기술에 책임 더하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KT

국내 최대 종합 통신업체인 KT에 박윤영 대표이사가 새롭게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뒤, 인공지능 전환(AI)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과 함께 사회 공동체와 상호 협력하며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ICT 역량을 총동원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ISSC 2인 체제로...정보보호 리스크 관리 주목

올해 3월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 취임한 박윤영 KT 대표는 지난해 발생했던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표 직속 기구 정보보호거버넌스(ISSC)를 통해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최근 박윤영 대표 체제 전환과 함께 이례적으로 최고 개인정보책임자(CPO)에 김창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프로그램 매니저(PM)을 선임했다. 이전 시스템에서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CPO를 겸임해왔다. 이로써 ISSC 구성원인 CPO, CISO가 기업 내 정보 자산과 개인 고객 정보를 각각 맡게 됐다. 정보보호 부문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1035억원에서 2023년 1218억원, 2024년 125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IT 투자 예산 대비 비율도 2022년 5.4%에서 2024년 6.3%까지 약 1.0%p 늘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로는 연간 2000억원 규모까지 증액해 5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사회공동체와 협력... 지속성장 추구 정보보호 체계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대표직속 기구 정보보호거버넌스 가동 정보보호 투자 확대... 5년간 1조 투입 딥러닝 기반 AI, 스팸·유해정보 차단

사전에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AI 스팸 차단 프로세스도 운영한다. 고객이 직접 스팸을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스팸신고 문자 또는 이미지를 받으면 키워드 등록 또는 딥러닝 학습을 통해 AI가 유해 정보를 인식한다. 최근 QR 코드로 고객 정보와 금융 정보를 편취하는 '규심' 예방을 위해 '안심QR서비스'도 가동 중이다. 이 밖에 유해 앱을 자동 차단하는 KT안심박스, 휴대폰 번호를 보호하는 050 개인안심번호 등 서비스도 운영한다.

◆사외이사 윤리 강화... 주주친화 정책도 확대

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이사회 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KT는 지난 5월 사외이사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개정



▲박윤영 KT 대표가 지난 3월 31일 경기도 과천시 KT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를 방문해 주요 네트워크 인프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KT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실시간 보안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T

했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에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조치하고 사직 권고 등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반기에 한번 윤리적 실천과 관련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간 최소 주당 배당금을 2400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23년 제시한 '최소 1960원 배당 보장'보다 약 22.4% 늘어난 수준이다. 또 2028년까지 별도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계획이다.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에 관한 사전 심의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경쟁 사전심의 센터를 가동해 신규 서비스 출시와 계약 체결에 앞서 심의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공정거래 사전심의율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100%를 기록했다.

◆AI 교육부터 통신비 지원까지... 디지털 포용 앞장

KT가 실천 중인 디지털 포용 사회공헌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아동·청소년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해소하는 대학생 봉사단 KIT(KT 대학생 IT서포터즈) 활동을 2024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KI

T는 KT 임직원과 IT 관련학과 전공자가 중학생 등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AI 코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백령도 등 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 지역에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윤리강령 개정, 사외이사 윤리성 강화 배당금 상향, 공정거래 사전심의 가동

아동·청소년 디지털 격차 해소 활동 AI 코딩 교육 등 대학생 봉사단 운영 청각장애 언어재활 돕는 '꿈품교실'도

청각 장애 아동의 언어 재활과 사회성 향상을 돕는 'KT 꿈품교실'도 운영중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등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인공 와우 수술 이후 재활 치료를 받는 아동들이 대상이다. 맞춤형 교육 공간을 조성해 의료 지원 사업 'KT 소리찾기'와 연계해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등 해외 취약 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요금 할인도 지원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시내·시외전화는 월 통화료의 절반을 감면한다.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기본료를 최대 1만 1000원 면제해준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가 지난 5월 15일 서울 중로구 KT광화문빌딩East에서 대학생 봉사단 KIT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KT꿈품교실에 참여한 난청 아동이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받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2년 연속 결선 미출전... 이적 가능성도 제시
▲SSG랜더스, '12연패'에 창단 최다 연패 기록에 '8위' 추락 /사진 뉴스시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5안타... '슬럼프 극복'
▲정몽규, 사퇴 앞두고 사비 '월드컵 포상금' 약속... 8강 가면 '30억'

▲SOOP(쑤),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구단 인수... 2일 V리그 가입
▲여자 배드민턴 안세영, 싱가포르 시즌서 일본 야마구치 꺾고 '1위'